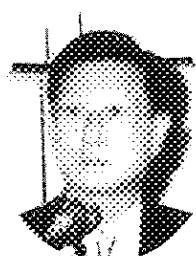


VI. 議 事 錄



司會 【申德鉉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회의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된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신덕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서깊은 이곳 빛고을 광주에서 본 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적극 협조해 주신 광주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과 단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잠시 후)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藤村 正哉(후지무라 마사야) 단장을 비롯한 일본측 단장단의 예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측 단장단 13명은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안내에 의해 4월 11일 15:00 청와대를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님을 예방하였으며, 16:30에는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님을, 그리고 오늘 09:30에는 진남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을 각각 예방하였으며, 방금 전에 장제식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만나셨습니다. 본 회의가 한일 양국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민간 경제인회의임을 강조하면서, 한일간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을 위해 진솔한 대화와 교류의 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받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장선출과 의제채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종래에는 양국 단장·내빈·고문의 인사말씀이 계신 후, 본 회의의 의장선출과 의제채택이라고 하는 순서가 이어졌습시다만, 32회 회의부터 형식적인 절차는 생략키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인회의 관례에 의거 주최국측 단장께서 정의장에, 방문국측 단장께서 부의장에 취임하시는 것과,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제가 채택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開 會 式

司會 : 그럼 지금부터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의하여 양국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게시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 대표단 단장이신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1) 團長人事



金 相 廈

韓國側 代表團 團長

방금 소개받은 韓日經濟協會 會長 金相廈입니다. 오늘 새로이 시작되는 21世紀의 첫 해에 開催되는 第33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에 즈음하여, 韓國側을 代表하여 한마디 人事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會議에 參席하여 주신 藤村 正哉 團長님을 비롯한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을 眞心으로 歡迎드리며, 韓國側 代表團 여러분께도 感謝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多忙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枉臨하시어 오늘의 會議를 빛내 주신 寺田 輝介(테라다 테루스케) 駐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閣下와 張在植 産業資源部 長官님, 그리고 高在維 光州廣域市長님을 비롯한 來賓 여러분께 韓國側 團長으로서 甚深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韓日 兩國間에는 때로는 많은 曲折과 變化가 있었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두 나라 經濟人들 사이의 相互協力機構인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1969년에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라는 名稱으로 發足한 以後,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줄곧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相互協力關係가 敦篤하고도 堅實하게 發展되어 온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事實입니다.

尊敬하는 두 나라 代表團 여러분. 이제 새로운 世紀가 시작된 것을 契機로 우리 두 나라 經濟人들이 해야 할 일은 果然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再確認하시고, 보다 成熟된 「서로 믿고 協力하는 關係」를 굳건한 磐石 위에 올려놓기 위해 全心全力하는 것만이 두 나라 經濟發展을 위해, 또한 두 나라의 共同發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至上至高의 責務라고 굳게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지금 두 나라의 經濟는 世界的인 成長鈍化의 餘波로 어려운 處地에 놓여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過去에도 그러했듯이 우리 두 나라 經濟人들은 서로 힘을 모으고 智慧를 모아, 이번에는 반드시 새롭고도 굳건한 協力體制를 이룩하여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고야 말 것이라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지금의 世界는 혼자 힘만으로는 生存도 發展도 不可能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于先 가까운 이웃끼리 協力하고, 이를 바탕으로 周邊의 여러 나라들과 協調함으로써 窮極의으로 全世界가 힘을 합쳐 「더불어 사는 世上」이 到來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두 나라가 힘을 모아 協力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礎石이 된다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親愛하는 두 나라 代表團 여러분. 지금 두 나라 사이에는 풀어야 할 課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바로 經濟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나라 사이의 모든 問題도 두 나라의 經濟가 든든한 協力으로 發展된다면, 다른 모든 問題의 解決도 그나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實際로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經濟協力の 成果는 곧 모든 分野에서의 問題를 解決하는 促進劑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나라 經濟人들은 크나 큰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고 舍心努力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모든 分野에 걸친 相互 協調를 促進시키는 主役임을 自負하시고, 더욱 奮發하여 알찬 協力效果를 거두는데 加一層 盡力하여 주시기를 懇曲히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會議에서는 製造業에 있어서의 IT 活用과 構造調整 속에서의 兩國間 協力方案, 그리고 地域間 交流를 비롯한 各種交流의 活潑한 展開 등을 中心으로 協議하는 案件이 上程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代表團 여러분께서는 眞摯하고도 活潑한 討議를 거쳐 좋은 結果를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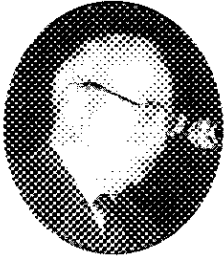
그리고 한가지 더 添言한다면, 이번 會議가 이제 막 開幕된 21世紀를 裝飾하고, 今世紀 동안 내내 우리들이 나아갈 指標가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부터 祈願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枉臨하여 주신 貴賓 여러분께서도 많은 指導와 協調, 그리고 激勵을 베풀어주시기를 仰請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2年 월드컵蹴球大會」가 史上 처음으로 韓日共同主催로 치루어지는 만큼 全世界의 耳目과 期待를 모으고 있으므로, 이를 成功시키기 위해 우리 經濟人들도 있는 힘을 다해 支援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當付드리면서, 저의 人事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왕림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측 대표단 단장이신 藤村 正哉(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藤村 正哉

日本側 代表團 團長

방금 소개받은 日韓經濟協會 會長을 맡고 있는 藤村 正哉(후지무라 마사야)입니다. 21세기 들어 처음 열리는 기념할 만한 이 회의가 이곳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인 광주 광역시에서 개최됨에 즈음하여 일본측을 대표하여 한마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相廈 단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측의 고문님들, 그리고 대표 단원인 여러분들, 이번 저희 일본측 대표단을 따뜻하고 성대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내빈으로 자리해 주신 張在植 산업자원부 장관님, 高在維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寺田 輝介(테라다 테루스케) 주한일본대사님께서 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회의의 개최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일경제협회 여러분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한 秋山 喜久(아끼야마 요시히사) 관서경제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일본측 대표단 여러분께도 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 드리는 바입니다.

1년 후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한일국민의 교류는 작실히 확대일로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가 결정되기까지의 정위에 관해서는 3년 전에 미야자키에서 개최된 경제인회의에서 구평 회 前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豐田 章一郎(토요다 쇼이치로) 前경단련 회장님과의 뒷얘기가 생각납니다만, 지금 이렇게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 교류가 현격히 증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공동개최하기를 잘했다고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 1월 26일 동경의 신오쿠보역에서 포움에서 떨어진 한 남성을 구출하기 위해 돌아가신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의 용기는 한일 양국민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수현씨의 추도식에는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수많은 시민들이 보였고 한사람의 전도가 있는 젊은이의 존엄한 죽음을 기리는 것을 보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수현씨의 명복을 기원

드림과 함께 이 존엄한 희생이 양국민의 가슴에 남아 앞으로의 한일 우호친선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논하는데 있어서 지방도시간의 교류축진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각각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대회는 지역간교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의에는 매마침 일본측으로부터 麻生 渡(아소 와파루) 福岡県(후쿠오카현) 지사님과 秋山 喜久(아끼야마 요시히사) 관서경제연합회 회장님, 이외에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한일 지역간교류 방향에 대해서 추후에 시사적인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작년은 일본측으로부터의 對韓 투자가 신고된 자료에 입각하여 보면 전년대비 40% 증가한 24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특히 제조업의 진출이 눈에 띄는 등 기업간의 협력·제휴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일의 중장기적인 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 경제인회의에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만,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심포지움 등에서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 작년 9월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森(모리)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자리에서 민간주체가 되는 『한일 비즈니스포럼』을 편성하고 FTA의 실현을 위해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국의 인선을 거치가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치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FTA에 대해서는 한일 각각 일부 분야에 있어서 조기실현에 대해 망설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FTA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FTA를 무시하고 양국경제가 구미제국과 대등한 힘찬 발전을 이룩하기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FTA의 조기실현을 위해 서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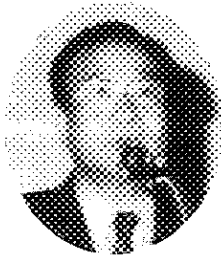
한편 세계경제를 견인해 왔던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라 겨우 경기개선의 징조가 보였던 일본경제에도 앞날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2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3월의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観)에 의하면 대기업 제조업의 업계상황지수가 2년 3개월만에 악화로 전환되는 등 景氣停滯感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또한 니플레 경향도 현저해 지는 등 일부의 호조를 보이는 업종이 있다는 것은 하지만 앞날은 예측불허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도 외환위기를 극복한 직후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은 양국경제에 있어서 고난의 1년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난이야말로 우리 한일경제인이 의기소침함이 없이 힘을
내어 서로 도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한일 양
국의 유대는 더욱 더 돈독해 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가 솔직하고 결실 있는 의견교환의 장이 되며, 세시대의
양국관계에 걸맞는 많은 성과를 남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할
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내빈축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신 가
운대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인을 격려하시고 본 회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
석해 주신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來賓祝辭



張 在 植
産業資源部 長官

반갑습니다. 후지무라 마사야 회장님, 김상하 회장님,
테라다 테루스케 대사님,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고재유 시
장님,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한일 양국의 모든 경제인
과 귀빈 여러분.

우선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음으로부터 환영
하는 바입니다. 저는 산업자원부 장관이면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도 이처럼 많은 한일 양국의 저명한 기업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모든 회의가 중요하고 의미 깊지 않은 적이 없었겠지만, 오늘
개최되는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21세기 들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이면서 빛의 고을, 민주주의 고
장인 광주에서 개최되는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광주 출신입니다.

오늘은 때마침 한국광기술원의 출범과 함께 예술의 고장 광주가 21세기 새로운
첨단산업의 하나인 광산업의 요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이처럼 중요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광주
의 빛나는 앞날을 위한 하나의 축복으로써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이후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교류의 전인차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지향해 나가야 할 양국간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국간 협력은 기존산업과 오늘 이룩한 光産業과 같은 신산업의 효율적인 점목과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정부와 사회,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면서 IT, BT, NT 등 이른바 신산업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일 양국 정상간에 IT협력 이니셔티브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구체적 협력사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기술교류나 공동연구개발과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산업분야 협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산업분야의 협력입니다. 특히 철강, 조선, 식유화학 등 설비과잉이나 통상마찰을 겪고 있는 정통제조업의 경우 국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의 분과회 주제로 “제조업에 있어서의 IT 활용과 협력방안”, “구조조정 속에서의 한일 협력방안” 등을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일 양국의 동반자적 경제관계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품·소재분야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무역은 대일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라는 해묵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원인은 상당부분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에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국가간 산업구조와 경쟁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양국 경제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품·소재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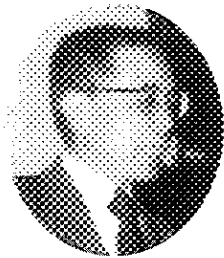
세째, 한일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동북아시아 내의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손을 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내 협력증진의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간 협력이 실질적

이고 효과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간에는 이미 큐슈, 호쿠리쿠 등과 활발한 지방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달에는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이 참가하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확대되도록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과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한일본국 특명전권대사이신 寺田 輝介(테라나 테루스케) 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寺田 輝介
駐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使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고재유 광주광역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저는 주한일본대사관의 대사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이신 이곳 광주에서 열린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식에 즈음하여 축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를 둘러보면 미국에 있어서의 경기하락의 영향에 따라서 상황이 한국에 있어서나 일본에 있어서나 매우 어려운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금융, 기업개혁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를 보면 최근 들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한일 양국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많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원래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긴밀해지면 해질수록 보다 더 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실과 세계적으로 양국은 높은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철강, 섬유, IT분야 등 각종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인 제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 투자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작년 1년 동안을 보면 과거 최고치를 크게 상회하는 24억 5천만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대비 4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일 양국은 이와 같은 양국간의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통해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양국이 현재의 번영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더욱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상호보완적인, 그리고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98년의 정상회담 이후 이와 같은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더욱 더 구축해야 한다고 해서 각종 환경정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3월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경제아젠다 21”을 토대로 해서 양국간에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투자촉진의 효과가 높은 한일투자협정을 가동하면 조기에 실현해 나가고자 이와 관련된 각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제3회 판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국 대사의 입장에서든 서울재판클럽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한국정부와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국관계를 더욱 더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분야의 협력, 지적소유권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동시에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해서 IT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작년 9월에 정상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해서 ‘한일·일한 FTA 비즈니스포럼’을 설치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동 포럼에 있어서 아주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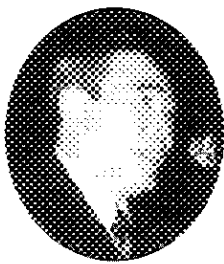
지회들로서는 지금까지 본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에 경제인들의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동시에 오늘의 이 회의에 있어서도 양국의 경제인들 가운데서 한일 양국의 이와 같은 새로운 협조관계의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앞으로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하나만 퍼블릭 릴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패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내년 개최될 월드컵대회에 대해서 몇 분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이 금년에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이 관광의 해를 기념해서 한일 공동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WTO 세계관광기구 유엔의 산하 전문기관입니다. 이 총회가 우선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사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른바 월드컵

대회에 앞서 한일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됩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양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니 전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기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일경제인회의의 더욱 더 많은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후지무라 회장님, 김상하 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본 회의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재유 광주광역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高 在 維
光州廣域市長

봄의 서기가 약동하는 오늘 존경하는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테라다 테루스케 주한일본대사님,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양국 경제협회 회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장제식 산사부 장관님, 박용성, 김각중, 김재철 고문님을 모시고 자랑스런 민주와 예술의 도시, 도약하는 우리 밝은 광주에서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140만 시민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멀리 현해탄 건너,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광주를 방문해 주신 한일 경제인 여러분을 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양국의 주요 경제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에서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된 것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우리 광주광역시는 선사시대와 백제시대의 유적을 비롯해서

조선시대의 빛나는 학문과 예술을 꽃피워 개성 있는 남도문화를 이룬 예향의 고장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국난 극복에 앞장선 애국충절의 고장이요 불의에 항거하여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도 이 나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주인권의 선진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광주는 지식 정보산업 시대에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국제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고 3회째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광주김치대축제와 같은 격조 높은 문화행사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월드컵대회의 개최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하남 평동 등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이곳에 광주과학기술원과 삼성전자, 아남전자 등 국내 우수기업을 유치, 첨단산업도시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유망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금 장제식 장관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는 빛광자 光産業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여 국가 지원산업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우리 광주는 새로운 광산업의 메카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시는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값싼 공장용지 지원과 세제감면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를 한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유리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고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부응하여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함은 물론 일본과 광주간의 교류와 공동번영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국 경제 지도자 여러분, 이곳에 머무시는 시간이 비록 짧지만 우리 광주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는 유익한 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파.

司會 :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고문인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에서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 顧問人事



金 珏 中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尊敬하는 후지무라 마사야(藤村 正哉) 회장님, 金相夏 회장님, 테라다 테루스케(寺田 輝介) 대사님, 張在植 산업자원부 장관님, 高在維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韓日 經濟人 여러분!

196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日經濟人會議는 兩國間 經濟協力과 友好增進을 통해 兩國 經濟成長에 커다란 寄與를 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初期 70年代에는 經濟開發과 産業育成 등 國家開發 戰略에 관한 巨視的 次元의 經濟協力으로 兩國 經濟發展의 土臺를 構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技術人力 交換, 産業構造調整 등 微視的 次元까지 交流의 幅을 넓혀 東北亞 經濟圈 形成에 接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成功的인 交流經驗을 살려 이번 33回 韓日經濟人會議에서도 昨今の 政治・經濟的 環境變化에 對應하여 보다 緊密하고 具體的인 協力方案이 導出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사피 中國 및 北韓에 대한 美國의 政策變化와 러시아의 積極的인 東北亞 介入活動 등으로 韓日 兩國을 둘러싼 國際政治 展望은 매우 流動的이라 하겠습니다. 經濟的으로도 未來 主導産業이라 할 수 있는 IT部門에 대한 各國政府의 發展戰略과 支援이 具體化되면서 이 部門에 대한 國際的 協力の 必要性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韓日 兩國頂上이 自由貿易地帶 推進 등 兩國間 經濟共同體 推進에 대해 友好的인 論議를 하였습니다. 우리 經濟界도 韓日 財界會議와 韓日 Business Forum 등을 통해 이들에 관한 實質的 推進方案을 檢討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基本的으로 IT部門을 包含해서 自由貿易地帶 創設 등 政府次元의 韓日 兩國間 協力論議는 결국 우리 經濟人들의 實踐을 통해 具體化 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會議를 통해 우리 韓日經濟人間 友誼가 더욱 敦篤해지고, 또 東北亞 및 世界經濟 秩序 變化에 共同對應하는 兩國 協力の 具體的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측으로부터 畠山 襄(하타케야마 노보루) 일본무역진흥회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畠山 襄

日本貿易振興會 理事長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일본측 고문으로써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발표하신 한일 공동선언문에 있어서 2002년에 한일 양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양국민의 교류촉진을 위한 이벤트 중의 하나로써 서로 상대국에서 3년간에 걸쳐서 각각 세 번의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입각해서 한국측은 작년 11월에 동경박사이트에서 KOTRA가 KOREA SUPER EXPO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측은 JETRO가 금년 2월에 한일페스티발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때 정보화, 복지고령화, 환경, 생활문화를 메인테마로 다루었습니다. 회장에서는 로봇 등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만든 파로라고 하는 로봇도 있었습니다만, 보러 온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테모스트레이션이 끝나는 것을 못기다리겠다는 뜻이 이 로봇을 만지고 싶어서 뒤에 있는 부모님의 허가를 받으려고 몇 번씩 뒤돌아보는 아주 귀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10만명이 넘는 많은 관람객이 있었고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JETRO는 제2회 한일페스티발을 부산에서 금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까 후지무라 회장님 등의 지방간 교류촉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JETRO에서는 일본의 지방과 외국 지방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컬 투 로컬’, 이것은 제패니즈 잉글리쉬입니다만, 이러한 ‘로컬 투 로컬’이라는 프로젝트를 세계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안건이 많았습니다. 전체 50건중 5건이 한국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매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오파쿠와 한국 인천광역시 사이에서 금속가공분야에서 제가 가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기타큐슈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산업기계교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야마현과 대구시와의 사이에서 IT관련산업의 교류를 한바 있고, 또 시마네현의 하마나시와 야마구찌 시모노세키시, 부산시 이 세개 도시 사이의 식품가공, 환경가공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광주광역시와 일본의 어떤 도시간에 아까 말씀이 나온 광산업분야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 JETRO가 지원할 수 있으면 더없이 큰 기쁨이겠습니다.

2001년에는 기타큐슈에서 제3회 산업교류 환황해경제권 아세안페어 개최를 예

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페어시에는 한일 양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JETRO는 이 페어의 공동개최측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측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JETRO는 TTTP 트레이드 타이어 프로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투자, 기술교류, 수출입의 매칭사업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집계를 보면 한국으로부터 등록된 건수는 1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등록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TTTP를 통한 한일 양국간의 무역투자의 가일층의 확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는 제작년 한국의 KIEP와 JETRO의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그 체결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각각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야마자와 아시아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 후지무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에 관한 심포지움을 작년 동경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패널리스트 등 양국의 전문가가 이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민간경제계에 의한 비즈니스포럼이 시작되지만, 그 포럼의 성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JETRO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멕시코의 상공관공서, 이곳은 경제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곳과 함께 연구를 해서 발표한 바 있고, 현재는 칠레와 JETRO 사이에서 양국간의 FTA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현재 최종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진흥기구 내에서 JETRO의 가장 유력한 파트너중의 하나가 KOTRA입니다. JETRO와 KOTRA와의 관계는 해마다 더욱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서 최근에는 연수생 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까지 KOTRA 사장님은 황두연 사장님이셨습니다. 후임 사장님이신 오영교 사장님께서도 더욱 더 활약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내각에서는 한승수님이 외교통상부 장관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 장관님께서서는 상공부 장관, 주미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 때부터 계속 친숙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저 자신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경제인회의가 큰 결실을 맺고 앞으로의 한일 무역관계, 아시아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에 가뭇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장제식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사모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리셉션 시간까지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난상 정리가 있겠사오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후의 회의는 金相廈 단장님, 藤村 正哉 단장님이 의장과 부의장에 취임하시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基調演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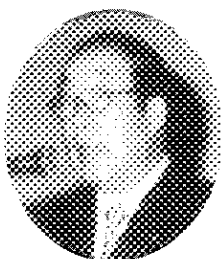
金相廈 議長 :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續開하여 基調演說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韓國側으로부터 大韓商工會議所 朴容晟 會長께서 「最近 世界經濟動向과 韓日 經濟協力の 課題」라는 주제로 基調演說을 해 주시겠습니다.

朴容晟 會長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美國 뉴욕大 經營大學院을 졸업하셨고, 현재 斗山重工業 代表理事 會長으로 계시면서 大韓商工會議所를 이끌고 계시며, 95년부터는 國際柔道聯盟 會長職을 수행하시는 등 經營活動 및 通商關係 여러 分野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韓日 兩國 經濟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적극적인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요즈음 世界經濟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러한 狀況 속에서 韓日間에 바람직한 協力方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유의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朴容晟 會長님, 부탁드립니다.

(1) 韓國側 基調演說

「最近 世界經濟動向과 韓日 經濟協力の 課題」



朴 容 晟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斗山重工業 會長

존경하는 후지무라 마사야(藤村 正哉) 會長님, 金相廈 會長님, 그리고 테라다 테루스케(寺田 輝介) 駐韓 日本 大使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韓日 兩國 經濟人 내외분 여러분!

먼저 韓日・日韓經濟人會議가 由緒깊은 都市 光州에서 第33次 會議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本人이 오늘 兩國를 代表하는 經濟人들 앞에서 基調演說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韓日・日韓 經濟人會議는 지난 69年 發足 이래 오늘 第33次 會議에 이르기까지 30餘年 동안 兩國의 주요 都市를 교차 방문하며 韓日 兩國의 經濟協력과 相互 理解增進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는 모두 兩國 經濟人 여러분들의 각별한 支援과 協助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向後에도 이 會議가 21世紀 韓日關係의 發展과 協力強化의 牽引車 役割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世界經濟環境의 變化와 展望>

존경하는 兩國 經濟人 여러분! 지난 1990年代 이후 世界經濟環境은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共產圈의 崩壞로 理念競爭이 쇠퇴하고, WTO체제 수립으로 自由貿易과 世界化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世界各國은 國境을 초월한 經濟交流와 協力을 적극 추진하면서 21世紀의 새로운 經濟秩序를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1999年 11月 시애틀에서 열린 WTO 閣僚會談이 世界化와 自由貿易을 반대하는 NGO들의 시위로 부산되는 등 世界化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多者間 協定에 基礎한 世界化 추세와는 별도로 NAFTA, EU, 南美南部共同市場 등 地域經濟의 블록化가 各國간에 同時多發的으로 進行되고 있어 經濟블록 構成에서 제외된 國家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컴퓨터, 移動通信, 인터넷을 비롯한 情報通信技術의 폭발적인 發展은 기존 產業構造와 企業經營 形態를 根本的으로 혁신시키면서 世界各國의 經濟構造의 기본 틀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이후 「온라인」업체들의 將來性에 대한 懷疑가 확산되면서 최근 많은 닛켄 企業들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E-Business 革命이 향후 世界經濟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經濟環境 속에서도 지난 10여 年間 世界經濟는 世界化와 情報通信革命을 주도한 美國經濟의 好況에 힘입어 멕시코, 아시아, 러시아 經濟危機 등을 克服하며 어느 정도 成長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순항하던 世界經濟가 작년부터 中東地域 갈등고조로 인한 油價의 급등, 美國經濟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日本經濟의 침체 지속, 東南亞細亞 國家들의 經濟危機 재연 가능성 등으로 다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韓日經濟의 現況 및 構造調整 推進>

기품經濟 崩壞以後 지난 10여 연간 景氣沈滯가 지속되어 온 日本經濟는 그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景氣浮揚策과 金融產業 構造調整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回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次 大戰以後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日本經濟를 지탱해 오던 輸出이 지난 1月 5年만에 가장 큰 폭으로 減少하였으며 貿易收支 또한 赤字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다 日本 GDP의 60%가량을 차지하는 民間部門의 消費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企業들의 投資와 산업생산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日本政府가 그 동안 써 왔던 財政 및 金融政策을 통한 景氣浮揚도 더 이상 그 效果를 기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日本政府가 지난 10여 연간 景氣浮揚을 위해 財政擴大政策을 써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公共

負債가 日本 國內總生産 對比 130%인 5조 4000억 달러로 늘어나 더 이상 財政擴大를 통한 景氣浮揚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日本銀行이 지난 3月 末 資金供給擴大를 통한 金利引下를 유도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를 통해 景氣鈍化趨勢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外換危機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韓國經濟도 작년부터 大宇 그룹 處理 지연, 現代그룹의 流動性 위기, 金融圈 構造調整 지체 등으로 企業과 金融圈의 不實問題가 다시 대두되면서 株價가 급락하고 資金市場이 마비되며 景氣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今年 들어서는 豫算의 조기집행 등 政府의 積極的인 景氣回復 努力으로 資金市場의 경색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消費心理가 회복되면서 企業들의 2/4分期 景氣展望이 호전되는 등 景氣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美國, 日本 등 世界 主要國들의 經濟狀況이 위낙 분투명하여 對外依存度가 높은 韓國經濟로서는 금년도 經濟展望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對內外 經濟環境 속에서 韓日 兩國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成長의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두 철저한 構造調整 推進을 통해 經濟體質을 根本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兩國은 構造調整과 景氣浮揚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經濟再生을 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政府가 景氣浮揚을 통해 일시적인 景氣回復을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構造調整 작업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市場의 평가이며 최근 두 나라의 經濟狀況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韓日 兩國은 지금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自己改革을 통한 經濟體質 強化에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世界經濟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苦痛스럽고 어렵더라도 과감한 構造調整과 改革作業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0年代 美國이 엄청난 失業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는 改革과 構造調整을 할 때에 우리 韓日 經濟人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美國經濟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美國企業人들의 構造調整 작업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 다. 한 두 해 어렵더라도 종업원들을 설득하여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企業家의 책무인데도 조금 어렵다고 줄이고, 자르고, 닫고, 팔고 나면 美國經濟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홍보왔던 美國經濟는 그 후 10년에 걸친 好況을 구가하였지만 日本은 10년 長期景氣沈滯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韓國은 97년부터 불어닥친 外換危機로 인하여 經濟가 거의 파탄지경까지 이르렀습니 다. 美國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韓日 두 나라도 진정한 개혁과 構造調整을 통

해서만 經濟難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國政府는 今年 3月부터 經濟危機 以後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4大 部門 改革作業을 市場이 주도하는 상시 改革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常時 改革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정착을 위해 倒産關聯 3法의 統合, 不動産 構造調整會社 設立, 장크본드市場 育成 등 制度整備作業에 박차를 가하면서 構造調整과 經濟改革을 더욱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市場이 主導하는 常時的인 改革과 構造調整의 추진이 방향은 올바르게 선택했다고 보이지만 對外經濟環境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과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히 실천되고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機能을 발휘할 지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韓日 經濟協力の 成果와 問題點>

韓國과 日本 兩國은 지난 1965年 韓日 國交正常化 이후 貿易, 投資, 技術移轉 등 經濟 각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兩國의 協力關係는 兩國 모두의 經濟發展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韓日 經濟關係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問題點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懸案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높고 높은 산, 깊고 깊은 골짜기, 넓고 넓은 강을 무수히 건너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韓日間の 懸案問題로 떠오르는 세 가지 問題, E-Business에서의 韓日間の 協力, 韓日間の 貿易逆調와 對韓投資不振, 그리고 韓日間の 自由貿易協定 등 세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usiness에서의 韓日間 協力>

첫째로 昨今の 디지털 經濟로 대변되는 새로운 經濟環境에서 韓日 兩國이 E-Business를 主導하기 위한 相互協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日本과 韓國이 E-Business分野에서 亞細亞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美國에 비해서는 현저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E-Business 基盤造成이 미흡한 亞細亞市場을 장래 韓國과 日本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韓國과 日本間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韓日 兩國政府는 작년 9月 頂上間에 合意한 ‘韓日 情報技術(IT) 協力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금년 2月 日本에서 第1次 韓日 電子商去來 政策協議會를 개최하였습니다. 同 會議에서는 서류없는 貿易 實現, 안전한 電子商去來 基盤 構築을 위한 兩國 認證機關의 연계, 産業別 B2B 協力事業 확대, 電子部品體系 標準化와 電子部品 DB 交流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韓日 E-마켓

플레이스 構築을 통해 韓日 電子商去來市場을 통합해 나가고 將來에는 이를 e-Asia次元으로 發展시켜 나가기로 合意하였습니다.

그러나 兩國政府의 이러한 試圖가 實際 現場에서 成果를 거두려면 兩國의 IT 産業과 E-Business에 종사하는 企業人間에 交流擴大를 통한 共感帶 增進과 人的 네트워크 形成, 技術提携, 데이터 共有와 標準化, 新規事業 共同 開發 등의 多様な 協力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Business에서의 兩國間 協力は 이제 시작 단계인데 日本의 발전된 電子, 通信 部品 관련 基盤技術과 韓國의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가 잘 결합되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貿易逆調와 投資不振>

둘째로 韓日間の 貿易逆調와 投資不振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韓日間の 經濟關係는 協力보다는 競爭的인 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日本企業이 韓國에 투자하고 韓國과 日本企業이 전략적으로 共同利益을 위해 제휴점을 찾기보다는 서로간에 부족한 물자를 나누어 쓰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經濟協力の 關係라기보다는 通商의 關係만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兩國間에 産業構造 調整을 위한 努力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韓國의 對日 貿易赤字 특히, 資本財와 部品・素材産業에서의 赤字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構造的인 貿易逆調現象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日本企業의 對韓投資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韓日間の 構造的인 貿易逆調를 개선해 가는 가장 根本的인 방안은 더 많은 日本企業들이 韓國에 直接投資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日本企業의 韓國投資는 兩國의 交易規模와 민접도를 감안할 때 실망스러운 정도로 적은 수준입니다. 現在 韓國內 外國人投資金額 중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97年度에 3.8%까지 감소하였다가 99年度에 11.3%로 다소 回復하였으나 40.3%를 차지하는 EU와 24.1%의 美國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韓國의 外資誘致 不振 事由 및 投資環境 改善>

물론 日本企業이 對韓投資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韓國官僚의 形式主義와 行政規制는 全世界에서 가장 심하다는 日本보다 한 수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韓國인들의 外國人 기피증, 특히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과거로 인한 日本企業에 대한 배타적 선입관은 제가 다시 논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勞使問題입니다. 저는 過去에 韓國에 투자했던 상당수의 日本企業들이 쓸쓸한 기억만을 간직한 채 韓國에서 철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투자했던 日本企業 대부분은 당시 韓國의 질높고 값싼 勞動力에 매력을 느껴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히 87年 韓國에서 民主化가 急進展된 以後 勞使葛藤이 표면화되면서 韓國勞動市場에서 高賃金, 低效率이 초래되었고 많은 日本企業이 더 이상 韓國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이때에는 日本企業 뿐만이 아니고 다른 外國企業들도 마찬가지로 韓國을 떠났습니다. 外國企業이 원조기관이나 자선단체가 아닌 한 이윤을 창출하기 힘든 여건 속에 韓國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무질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80年代 末 韓國進出 日本企業의 勞使問題에 대하여 韓國 國民과 언론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韓國企業人들 간에도 많은 반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하여 투자하야 달라고 사정을 하여 데려온 기업을 좀 배부르다고 쫓아내다시피 韓國에서 철수시킨 것은 명백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韓國은 外國人 投資環境의 개선을 위해 그 동안 많은 制度改善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政策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2月末 金融勞組 罷業 때 韓國政府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 금년도 大宇自動車의 整理解雇 강행 등은 우리의 勞動政策이 확실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金大中 大統領도 經營權 간섭 등 불법, 폭력적 勞動爭議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천명하였습니다.

물론 舊時代의인, 資本家와 勞動者를 구분하는 발상으로 勞使關係를 보는 부류가 아직도 韓國에 다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全世界 어디를 보더라도 버리떠를 두르고 깃발을 휘날리며 데모하고 파업을 하는 곳은 오직 韓國뿐입니다. 日本이 全世界 수많은 나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생긴 勞使問題를 가지고 현지 노동자들이 日本本社 앞에서 데모를 한 것은 韓國뿐이라고 들었습니다. 本國에서 한정된 보고만을 받아 보는 外國企業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나라에 과연 투자할 의향이 별로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韓國은 勞動市場이 경직되어 있으니 투자하면 큰 손해를 보고 간다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日本企業이 韓國에 투자하여 좋은 結果를 본 事例는 코오롱, 삼성전관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많은 EU나 美國企業이 韓國에 투자한 후 원만한 勞使關係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收益을 내고 있습니다.

<日本企業의 對韓投資 擴大 必要性>

지난 外換危機는 韓國의 經營環境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大馬不死라는 말이 철칙처럼 믿어졌지만 外換危機 이후 大企業의 不渡가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韓國의 모든 企業은 政府가 시켜서, 金融機關이 強勸해서, 國民이 비난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보다 '生存'을 위해 構造調整과 外資誘致를 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外換危機以後 國內 金融市場이 마비되고 企業의 收益性이 단기간에 개선될 可能性이 희박한 상황에서 韓國의 企業들에게는 철저한 構造調整 추진과 外國資本의 유치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입니다.

이미 많은 주요 大企業의 資産이나 株式이 外國投資者의 손에 넘어 갔으며, 앞으로도 상당수의 企業이 外國人 소유로 바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韓國投資에 관심을 두고 있는 企業은 거의 美國 또는 EU 國家들이 대다수이고 日本企業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日本企業 자체가 不況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들도 構造調整을 해야 하는 판국이니 사실 韓國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韓國과 日本이 처한 특수한 地政學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日本企業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日本은 韓國의 우수한 企業과 産業이 美國과 EU國家들의 수준으로 넘어 갔을 때의 결과를 보다 신중히 고려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지난 外換危機 이후 韓國의 外資誘致事例를 보면 많은 美國과 유럽의 企業들이 韓國企業을 인수, 또는 투자하였습니다. 韓國投資에 대한 위험도가 아직 높은데도 이들이 기약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否定的으로 비추어지는 韓國의 投資與件에도 불구하고 韓國投資를 통해 21世紀 成長可能性이 가장 큰 東亞細亞에 生産據點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日本企業들은 아직도 韓國의 勞使關係 등 投資誘引不足을 탓하며 거의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韓國企業의 構造調整에 日本企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韓日間의 經濟關係에서 발전이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큼니다. 우리는 日本産業도 調整을 해야 하는 當爲性을 인정하며, 바로 그 日本産業 構造調整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核心分野에서의 對韓 直接投資가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韓國에는 많은 企業들이 市場에 나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망이 좋은 企業들을 引受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팔려고 市場에 나온 企業들의 業種이 단순히 2 내지 3年 운영할 斷續的인 事業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 영위할 수 있는 事業들이 대부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兩國 經濟人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韓國은 모든 면에서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急速度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變化하지 않으면 韓國經濟의 존립자체가 우려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韓國의 모든 産業이 철저하게 변하기 위한 構造調整 過程에 地政學的으로나, 歷史的으로 가장 가까운 日本企業은 천지히 외면하고 美國과 EU國家 企業들만 참여하게 된다면 韓日間의 經濟協力이나 貿易逆調 問題 해결은 영원한 숙제로 후손들에게 물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흔히들 일컫는 가장 가까우면서 먼 나라라는 韓日關係의 표현이 가까우면서 더욱 먼 나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兩國 經濟人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韓日 自由貿易協定 推進方向>

셋째, NAFTA, EU 등 世界經濟의 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韓日 自由貿易協定 체결, 나아가 東亞細亞 經濟協力體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韓日兩國은 이미 韓日 通商長官會談 合意에 따라 韓國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과 日本의 亞細亞經濟研究所를 중심으로 韓日 自由貿易協定の 經濟的 效果에 대한 共同研究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兩國頂上이 ‘韓·日 FTA 비즈니스 포럼’을 설립기로 合意함에 따라 兩國의 企業人 代表 10여명씩을 선정하여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제 本格的인 論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同 포럼의 韓國側 委員長은 本人이, 日本側은 우시오 지로(牛尾 治朗) 우시오電機(株) 會長님이 委員長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韓日 自由貿易協定은 兩國의 學界와 經濟界에서의 논의와 연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現在로서는 향후 두 나라의 經濟에 미친 영향과 經濟的 과장에 대한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關稅撤廢만 놓고 볼 때 韓國은 1次 産業과 輕工業에, 日本은 重化學工業에 生産 및 貿易特化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 業種에서 技術集約形 高附加價值 製品은 日本의 강세가, 中低價 汎用製品에 있어서는 韓國의 강세가 예상되며 韓國의 對日 貿易赤字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非關稅 障壁의 완화, 規模의 經濟 실현, 서비스産業에서의 交易 및 投資 擴大, 兩國企業間 提携 및 技術協力 擴大 등으로 兩國經濟의 效率性과 競爭力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韓國側에 否定的인 效果는 短期에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肯定的인 效果는 상황에 따라 매우 可變의이며 정확한 예측이 不可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自由貿易協定은 韓日 兩國의 現實과 經濟的 波及效果 등에 대해 多角的이고도 변밀한 協議와 檢討過程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否定的인 效果, 특히 韓國側의 貿易逆調 深化와 製造業 空洞化 防止를 위한 對策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韓日 自由貿易協定이 본격 추진되기 전에 自由貿易協定 施行 初期에 발생할 수 있는 兩國企業, 産業間의 全面的인 競爭을 방지하고, 각 産業分野에서 보다 效率的인 分業關係와 相互補完關係를 構築함으로써 資金, 人力 등 資源配分

의 效率性을 증대시키고, 兩國産業間에 實質的인 投資協力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協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러한 실질적인 措置가 선행되어야 韓日 自由貿易協定이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韓日 自由貿易協定을 통해 現在의 韓日間 貿易不均衡이 시정되거나 또는 시정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그 어떤 協力方案 論議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韓日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형식적이지 않고 實質的인 投資交流 擴大方案을 찾아 兩國 政府에 제안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에 좋은 協力同伴者가 있는데 왜 우리 兩國은 멀리서 協力 同伴者를 찾고 있겠습니까?

<맺음말>

韓日關係는 지난 98年 金大中 大統領의 訪日 以後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月에는 韓國의 日本 유학생인 이수현씨가 東京의 전철역 아래로 떨어진 日本人을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가 열차에 치여 죽은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수현씨의 희생은 韓日 兩國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日本에서 이수현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日本 歴史教科書 問題로 駐日韓國大使가 소환되는 등 韓日 政府와 國民間에 다시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韓日간의 불행한 過去事를 발전적인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經濟人뿐입니다. 이제는 韓日企業間の 關係를 競爭者의 關係에서 相互繁榮을 위한 協力者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韓日간의 많은 分野에서 互惠平等의 原則에 따라 交流協力を 확대하여 나갈 때에 兩國間の 關係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재신 兩國의 經濟界를 대표하는 企業人들이 이수현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책무를 졌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會議가 다가오는 21世紀 韓日 兩國의 繁榮과 發展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韓日關係가 政治的, 社會的인 過去之事의 족쇄에 물려 불편한 關係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이제는 經濟人들이 이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感謝합니다.

金相廈 議長：朴容晟 會長님, 귀한 말씀 대단히 感謝합니다. 일정상으로는 10분간 커피 브레이크 時間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0분 정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지무라 회장님과 상의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화장실에 갔다 오

시고 커피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잠깐 나가서서 커피를 가져다 드셔도 좋으니
그대로 續開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日本側의 基調演說을 付託드
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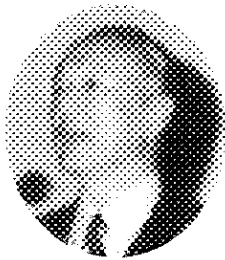
藤村 正哉 副議長 : 그러면 김상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측의 기조연설
에 들어갈까 합니다. 일본측으로부터는 關西經濟連合會의 아끼야마 요시히사 회
장님으로부터 「글로벌化 속에서의 日本과 韓國의 經濟關係에 對해서」라는 테마
로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아끼야마 회장님은 동경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關西電力(株)의 대
표이사를 맡고 계시며 關西經濟連合會의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
계활동을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에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경제에 있어서도 글로벌화의 스피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서 아주 유익한 발표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日本側 基調演說

「글로벌化 속에서의 日本과 韓國의 經濟關係에 對해서」



秋山 喜久

(社)關西經濟連合會 會長, 關西電力(株) 會長

칸사이(關西)경제연합회 秋山입니다. 藤村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 전통있는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심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은 글로벌化 속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
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世界的 趨勢와 아시아

<세계경제의 흐름>

먼저 20세기의 세계경제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0세기는 그 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순이 현저하게 드러나 이윽고 세계경제는 블록(Block)화 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국가주의’로, 또 다른 일부 국가들은 ‘사회주의’가 되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는 등 대단히 불행한 세기였습니다.

한편 세계의 현황을 보면, 20세기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1세기 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쳐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전세계에 확대되고 IT혁명과 맞물려 세계경제는 더욱 급속도로 세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세계화에 수반되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시장의 폭주’에 대한 완충(buffer)력 확보와 함께, 복수 국가들이 협력해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블록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무역에 대한 WTO의 영향력은 저하되고 양국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WTO에 보고된 FTA는 120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WTO를 보완하는 체제로 FTA추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현황과 과제>

그럼, FTA추진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세계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커다란 경제권입니다만, 이 지역 국가들은 원래 경제 시스템이나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여 이제까지는 지역차원의 연합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는 산업구조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심하고 지역내 무역관계를 보아도 수직적 산업간 무역이 중심이거나 미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상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역내무역이 차지한 비율(수출)은 동아시아의 21.4%에 대해 EU는 62.5%로, 3분의 1 이하입니다. 반대로 대미무역비율은 동아시아가 26.3%로, EU의 8.9%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입니다.

만일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적인 FTA추진 흐름을 타지 못 하고 현재의 구조

대로 나아간다면 동아시아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EU나 NAFTA의 보조시스템으로 전락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아가 지향해야 할 방향>

여기서 동아시아에서 FTA추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본다면, 우선 역내산업 강화와 시장육성을 통한 자립발전능력의 제고가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FTA추진의 열쇠는 어떻게 '아시아 각국의 상호 수평분업'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제규모도, 산업구조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평적 분업관계를 통한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현황>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현황과 과제에 대해 동아시아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일본과 한국 양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의 산업 및 무역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과 한국의 현재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제2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에 43.8%, 그 중 제조업이 32.6%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기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현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양국 산업구조의 공동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무역수지는 한국 측에서 대폭적인 수입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2000년 시점에서 적자폭은 1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입 모두 최근 들어 양국의 공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기기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간 공동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산업내 분업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내 무역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산업내 분업이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만, 이를 보면 기계기기분야의 지수는 '90년에 34.6이었던 것이 '99년에는 64.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면, 무역면에서도 양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양국의 자신있는 분야, 즉 비교우위산업을 활용한 균형 잡힌 수평분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일 수평분업을 기축으로 '아시아 각국의 상호 수평분업'이 이루어지면 역내산업의 고도화가 도모되어 소득 및 구매력이 상승하고 두터운 층의 역내시장이 형성되면서 가일층의 수평분업이 진전되는 好循環의 메카니즘 창출이 가능해 집니다.

2. 日本과 韓國의 水平分業

이웃나라끼리의 수평분업 진행에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양국의 수출입 모두 상대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0%사이로, 거의 비슷하고 균형 잡힌 수준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 양국의 주도산업에서도 독일이 프랑스로 수출한 자동차 수출액은 '98년에 68억달러,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72억달러로 매우 균형적인 산업내 분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과 프랑스는 '좋은 라이벌은 좋은 친구' 식으로 수평분업에 따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오늘날의 EU발전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최근 한일 각 분야에서 수평적 분업관계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어 아시아의 장래를 내다볼 때 큰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무역은 작년 일본의 對韓수출이 2,875억엔, 한국의 對日수출이 2,883억엔으로, 균형적 무역구조가 구축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 '新日鐵'와 '포항제철'이 전략적 제휴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기업간 제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기업들의 일본진출도 진행되어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가전제품은 일본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과 한국의 경제교류가 더욱 심화되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술차원이나 互惠性 높은 수평분업 실현이 기대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은 21세기에 동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미리 내다 본 것이며, 양국이 중심이 되어 이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아시아에서의 日韓協力

이러한 수평분업의 진전까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의 양국 협력은 '세계경제'라는 폭넓은 시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최근의 日韓關係>

그럼 여기서 최근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선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크게 전진했습니다.

김대통령께서 작년 9월, 다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정부 정상은 경제교류의 확대도모에 합의하였습니다. 김대통령은 당시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양국 경제계가 함께 경쟁하는 가운데 상호발전을 위해 서로 자극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양국 및 각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생존하여 꾸준히 번영할 것을 공동과제로 지적하셨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현재 양국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가 예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日韓 FTA 推進>

또한 경제면에서는, 세계차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규칙 세정에 있어 양국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한 양국은 현재 정체된 상태의 WTO 차기교섭의 조기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기반삼아 FTA는 WTO체제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통상정책으로 매우 유력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ASEAN과 한중일의 정상회담, 즉 'ASEAN + 3'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발전단계나 규모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기의 지역경제 통합 추진은 쉽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구미가 급속도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이제 곧 있을 중국의 WTO가입 등을 생각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도 경제적 연계를 시야에 둔 대응이 필요해 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연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간 FTA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맺음말

이러한 양국의 협력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다지고 양국간의 FTA 추진을 위해서도 향후 두 나라는 저마다의 경제력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구조개혁에, 서로의 강점을 배우면서 용기를 갖고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개혁 : 한국으로부터 본 받을 점>

저는 '97년 IMF이후, 경제 및 사회변혁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본 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IT전략을 보면, 한국에서는 1시간에 100엔 정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라는 신세대 인터넷 카페가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2만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환경정비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의 동대문시장이, 일본에서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은 아시다시피 소규모 상점의 집합체로서 각 점포가 서로 협력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 기획, 디자인에서 봉제에 이르기까지 겨우 3일에서 1주일만에 맞춤옷을 완성하는 점이 최대의 특징이라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밀착형 네트워크형 산업은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구조를 생각함에 있어 커다란 힌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3월에 인천공항이 개항했는데, 공항과 같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국가자세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진적 자세는 일본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 연계를 강화>

한편, 세계화와 IT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향후 국가간 경쟁 뿐 아니라 지역간, 도시간 경쟁도 격화될 겁니다. 일본과 한국도 국가간의 교류, 연계는 물론 지역차원의 교류와 연계가 더욱 필요해 집니다.

제가 사는 關西지방에서는 IT를 활용한 새로운 네트워크형 산업구조 시스템으로 '關西 e-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운용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일본기업들만의 참여로 그치고 있으나 장차 한국기업들도 부디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최근 일한관계는 경제 뿐 아니라 패션이나 관광,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방문객이 2000년도에 2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여행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무대 퍼포먼스 'NANTA'는 일본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높아, 지난 달 (3월)부터는 두 번째 일본공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관광집객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9월말에는 서울과 오사카(大阪)에서 제14회 세계관광기관 총회가 개최됩니다. 21세기를 관광의 시대라고도 합니다만, 신세기의 기념할 만한 첫 모임이 양국 공동으로 개최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이곳 광주시

를 비롯하여 양국의 20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교류들을 하나씩 거듭하면서 양국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물론,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에 굳고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에 ‘구름갈 때 비 따라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구름에는 항상 비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사이 좋은 둘은 언제나 행동을 같이 한다’는 뜻이라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를 전망해 보면 때로는 폭우권에 돌입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한 때 일본과 한국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은 친구’로서 협력하여 양국만을 위함이 아니라 21세기 동아시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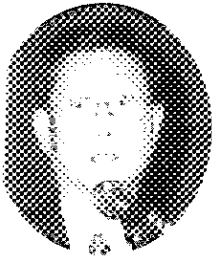
藤村 正哉 副議長 : 아끼야마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相廈 議長 : 방금 말씀해 주신 朴容晟 會長과 秋山 喜久 會長, 두 분의 講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基調演說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全體會議 ①

金相廈 議長： 계속해서 第 1日째 全體會議을 진행하겠습니다. 一般經過報告는 書面으로 대체하오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一般經過報告



申 德 鉉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2000년 6월, 日本國 東京에서 개최된 第32回 韓日・日韓 經濟人會議에서 合意된 각 사항의 실시상황 및 그와 관련된 양국간의 협력사업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本會議 傘下 2개 專門委員會인 韓日産業貿易會議과 韓日中堅中小企業委員會의 활동상황, 그리고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에 대해서는 잠시 후 한국측의 각 대표로부터 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 일반경과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 訪日輸出促進團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한국측은 韓日經濟協會가, 일본측은 日本貿易振興會(JETRO)가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2회의 추진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총 56개사 84명이 도쿄(東京), 오사카(大阪)를 비롯해 4개 도시에서 輸出商談會를 개최하였고, 총 상담건수는 501건으로 양국 기업의 교류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商談會 概要)

| 次數 | 期 間 | 規 模 | 業 種 | 訪問地域 | 商談件數 | 備 考 |
|-----|----------------|----------------|--------------------|------------|------|-----|
| 1 | 6. 12 ~ 6. 17 | 30個社 (43名) | 纖 維, 消費財 農水産 | 東 京 福 岡 | 299件 | |
| 2 | 11. 6 ~ 11. 11 | 26個社 (41名) | 纖 維, 消費財 | 大 阪 福 井 | 202件 | |
| 合 計 | | 56個社 (84名) | 纖 維, 消費財 農水産 | 4個 都市 | 501件 | |

2. 靑少年交流事業에 관한 사항

1985년 이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7월 하순에 한국 대학생 31명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일본에서는 8월 하순 21명이 訪韓하였다.

양국 대학생들은 7박 8일간의 체류기간동안 홈스테이, 學生交流, 文化産業施設見學, 古蹟地 踏査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대국의 산업·사회·문화를 직접 접하고 폭넓은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3. 地方間 交流協力事業에 관한 사항

한일 지방간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第7回 韓·日(큐슈(九州)) 經濟交流會議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미야자키(宮崎)현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日本 호쿠리쿠(北陸)지역과의 경제교류회의를 신설하여, 第1回 韓·日(호쿠리쿠) 經濟交流會議를 7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토야마(富山)시에서 개최하였고, 계속해서 第2回 韓·日(호쿠리쿠) 經濟交流會議가 금년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측 각각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큐슈지역 및 호쿠리쿠지역 간의 무역·투자·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중국(中國)지역으로부터 양국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民官合同 産業協力團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하였으며, 지역투자유치를 위해 일본 오사카, 시코쿠(四國), 큐슈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Local to Local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4. 産業技術協力財團의 사업에 관한 사항

한일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현안인 對日 貿易不均衡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1992년 양국 정부간 합의로 설립된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 兩財團은, 양국의 정부, 그리고 관계 경제단체 및 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속에 광범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작년에도 양국의 재단에서는 신규 및 공동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産業技術 人力研修事業, 部品産業協力 支援事業, 産業技術 交流協力事業, 세미나의 개최, 技術商談會 개최, 調査弘報事業 등 폭넓은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韓日財團은 貿易·投資協力事業으로서 일본의 대규모 투자환경조사단의 국내활동을 지원하였고, 東京에서 작년 12월에 개최된 「KOREA SUPER EXPO」기간 중에는 투자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

며, 한편 日韓財團은 서울에서 금년 2월에 개최된 「日韓페스티벌」의 각종 전시와 활동을 지원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金相廈 議長 : 첫 번째 議題는 “産業貿易會議 報告입니다. 同 會議의 韓國側 代表를 맡고 계신 韓國貿易協會의 趙健鎬 常勤副會長께서 事情上 不參하신 關係로 韓國貿易協會의 韓永壽 專務理事께 代讀을 付託드리겠습니다.

(2) 韓日産業貿易會議 報告



韓 永 壽

(社)韓國貿易協會 專務理事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이면서 한·일산업무역회의의 위원인 한영수입니다. 산업무역회의의 한국측 체어맨이신 趙健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께서 해외출장중이어서 본인이 대신하여 작년 11월 16, 17일 이틀간 서울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한일·일한산업무역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의 무역투자위원회, 기계공업위원회 및 산업일반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1999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 회의 상임위원은 한국 52명, 일본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측 체어맨은 2000년 3월 강만수 한국무역협회 前부회장의 사임으로 한국무역협회 조건호 부회장께서 맡고 계시며, 삼성물산(주)의 이수철 부사장께서 2회 회의 때부터 코디네이터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일본측은 첫 해부터 스미토모(住友)상사의 아끼야마 토미이찌(秋山 富一) 상임역이 체어맨을, 이시카와지마하리마(石川島播磨)중공업의 오지미 쇼조(大慈彌 省三) 부사장이 코디네이터를 맡아 오고 있습니다.

「제2회 한일·일한산업무역회의」에는 한국측에서 37명, 일본측에서 34명의 상임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회의는 각 주제마다 폭넓은 정보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주제별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주요 내용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 양국의 경제현황과 과제를 살펴 본 첫날 제 1세션에서는 한국측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선임연구원이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일본측에서는 경제단체연합회 후지와라 카쓰히로(藤原 勝博) 상무이사가 「일본의 경제정세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일본경제가 10년 가량 지속되어 온 장기침체에서 벗어났다는 일본측의 발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또한 최근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경제가 최근 들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을 토대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기업간의 합병이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에 관하여는,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수출뿐이며, 이를 위해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엔화의 국제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엔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아시아의 통화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일본이 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보유하게 된 노하우에 관해 한국측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측은 '에너지 문제는 기술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회답이 있었으며, 일본에서 개발된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틀째 제 2세션에서는 향후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거양의 송석준 대표이사가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방안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송사장은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이유가 R&D 투자 및 기술축적의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제정세에 발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승화시켜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품·소재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M&A 및 투자유치 등 외국자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한국을 세계시장의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변화된 한국의 사업환경을 설명하면서 한일 양국의 부품·소재산업의 집목은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필연적인 과제이며,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기술과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한편 납기를 지키는 등 네 가지 요소에 관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테마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계명대학교의 김도형 교수가 「한일 FTA 추진을 위한 지적·물적 인프라징비」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야마자와 잇페이(山澤 逸平) 소장이 「21세기의 바람직한 일한 경제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김도형 교수는 한일 FTA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각 분야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토론에서 한일간 FTA는 최근 한일간 최대의 이슈인 만큼, “한일간 산업내 분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지금까지의 분석은 FTA를 갑작스럽게 실시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한일간의 이상적인 분업형태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지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측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후진국형 산업에, 일본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소개하면서 산업내 분업이 발달하려면 상호 성숙한 산업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FTA 체결에 거부감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자와 소장은 한일 FTA에 의해 경쟁이 격화되고 기업간 제휴 및 대한투자가 활발해 지면 산업내 분업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른 한국측 위원도 한일 FTA를 체결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다만 업종에 따라 5~10년간의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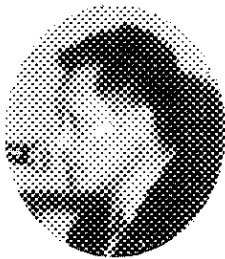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양국 참가자들은 FTA는 양국이 이해득실을 떠나서 양국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차원의 노력 못지 않게 기업인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한일·일한산업무역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합의사항이나 결의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위원들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질적이면서 부품·소재산업 협력과 FTA 등 양국간 최대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는 것이 최대의 수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로 산업무역회의를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3회 회의는 금년 11월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및 2회 회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유익하고 알찬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相廈 議長 : 한영수 전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韓日中堅中小企業委員會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韓國側 委員長이신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李重九 常勤副會長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 韓日中堅中小企業委員會 報告



李 重 九
韓國側 委員長

第19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第19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合同會議은 2001年 2月 14日~15日 兩日間 日本의 東京 國際포럼에서 開催되었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22명으로서 日本側은 칸노(菅野 利徳) 委員長을 비롯한 15명이, 韓國側은 權赫杓 委員長(代行)을 비롯한 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全體會議 I의 주제는 「中堅中小企業의 IT 活用」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먼저 일본대학 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 연구과의 스가사와 요시오(菅澤 喜男) 教授께서 「日本の 情報化 現況과 課題: 中小企業(특히 製造業)의 情報連帶」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본 발표에서 스가사와(菅澤) 教授는 일본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家庭, 企業, 社會的 측면에서 분석하고 앞으로는 大企業의 시대는 지나갔고 中小企業의 時代가 열렸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中小企業의 공개정보 네트워크 開發事業의 重要性和 그 成功・失敗요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의 뒤를 이어 韓國側에서는 中小企業研究院 심우인(沈愚逸) 博士께서 「韓國 벤처비즈니스의 動向과 政策課題」를 주제로 한국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現況 및 특징, 問題點, 전망 등을 설명한 뒤 앞으로의 벤처기업들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및 향후 변화방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양 발표자의 주제발표에 대하여 韓日 兩國 委員들간 質疑・應答을 통해

IT 산업 및 벤처비즈니스에 대해 이해를 높였으며, 全體會議 II 시간에는 최근 한일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韓日自由貿易協定에 대하여 日本의 JETRO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야마자와 이페이(山澤 逸平) 所長님이 대략적인 발표를 해주셨으며, 본 발표이후 兩國 委員들의 韓日 自由貿易協定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韓日自由貿易協定에 대해서는 兩國간 利害關係의 차이로 인해서 價值的인 結論을 도출하지는 않았으며, 서로간 討議를 통해 兩國간 立場의 理解를 넓히는 점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날은 産業視察로서 日本 流行의 최첨단 기지인 東京패션타운을 視察하여 발달된 일본의 衣類 및 패션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金相廈 議長 : 李重九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의 활동에 대해서 韓國側 團長이신 大韓製糖(株)의 薛元鳳 會長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 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報告



薛元鳳
韓國側 團長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일·일한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한국측 단장을 맡고 있는 薛元鳳입니다. 본 미션의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9년 4월 개최되었던 제21회 경제인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실시된 본 미션의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1989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11회에 걸쳐 매년 가을 한국측에서 7차례, 일본측에서 4차례 상호 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왔습니다만, 19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파트너십」 행동계획에서 그 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 보다 더 확대되길 바란다는 양국 정부의 기대가 표명됨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새로운 양국의 동반자 관계 구축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민간 사업으로서 그 존재와 역할이 양국 정부에 의하여 확인 받게 된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9년 후쿠오카(福岡)에서의 교류회에 이어 작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측 39명, 일본측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한일·일한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을 유치하였습니다. 본 미션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교류회의와 리셉션, 견학, 옵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도래에 걸맞게 가일층 충실한 정보교환과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 인적교류 및 상호이해가 더 한층 촉진되는 등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날인 10월 5일 교류회의 제 1세션에서는 한국측의 임길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겸 석좌교수께서 『동북아 시대의 신경제현상과 기업정보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추구하는 비전으로 평화, 정의, 자유, 평등, 사랑, 신뢰, 풍요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추구하는 “세계시민사회의 구축”을 제시하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현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 내부의 상호관계가 더욱 긴밀해져가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개선은 정보화를 기조로 삼아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이 가진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북한에 끌어 들여 한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북한의 개발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시도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날 제 2세션에서는 노무라종합연구소의 椎野 謙次(시이노 겐지) 수석연구원께서 「일한중 산업경쟁력과 일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코스트·규모의 경제성, 인재·기술, 매니지먼트 노하우 등 경쟁력요인의 격변으로 동북아시아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한국·일본·중국 3개국의 Business Alliance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현황으로 세벌집중의 구조적 개혁, 정부주도의 산업육성 및 관리, 외국기술 의존, 취약한 경제기반 등을 지적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으로 특화 및 기업·사업경영에서의 유연성 제고, 서구식 고효율 관리, 노사관계 개선, 대일·대중국을 겨냥한 품질개선 및 경쟁력 향상, IT관련 신사업 시즈의 창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일 두 나라 강사분들의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한 발표에 대해 솔직하고 충실한 디스커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당히 유의한 교류회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교류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있었던 스터디투어는 지난 3월 29일에 개항한 인천 국제공항을 인천광역시와 공항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견학하였습니다.

이어서 송추C.C에서 개최된 간친파티에서는 수준 높은 한국페스티벌 양상블의 연주회를 감상하는 등 매우 즐겁고 한일 경제인간의 가일층 두터운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회 한일·일한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은 참가자 전원의 하나된 마음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미션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최근 활성화된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문제 제기)와 양국 경제인간의 프리 디스커션을 실시하는 회의 방식을 제작년부터 실시해 오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89년 제1회 미션을 파견한 이래 12년째를 맞고 있는 본 행사가 작년 아소 유타카(麻生 泰) 단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패턴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선한 테마를 모색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한일·일한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相廈 議長：薛元鳳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全體會議에서의活動報告가 끝났습니다만, 다른 특별한意見이 없으시면 이것으로活動報告는 모두異意 없이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會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두 개의分科會로 나누어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안내가 있습니다.

司會：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두 분 단장님께서 해주셔서 예정시간보다 약 10분 정도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일 양경제협회 공동주최 리셉션이 무등 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최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탑승하시어 리셉션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分 科 會

(1) 第 1 分科會 (테마 : 製造業에 있어서의 IT 活用과 協力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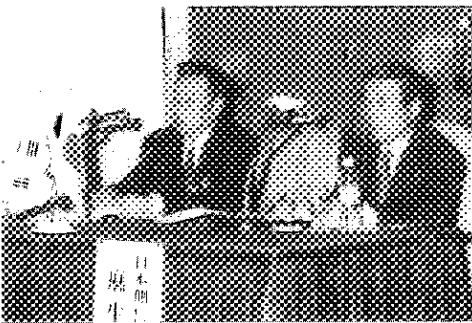


司會 [許南整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 以下 同一] : 지금부터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제1분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1분과회 사회를 맡게 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허남정 이사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맡아 주실 양측 코디네이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측 코디네이터이신 설원봉 회장님은 1971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1972년 부록칼린공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이후 대한전선(주) 전무이사, 대한제당(주)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현재 대한제당(주)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이시며,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한국측 단장을 맡고 계시는 薛元鳳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다음으로 일본측 코디네이터는 1969년 게이오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시고 아소시멘트 감사역에 취임하신 후, 현재 아소시멘트 사장으로 계시며, 설원봉 회장님과 함께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일본측 단장을 맡고 계시는 麻生 泰(아소 유타카) 사장님이십니다. (박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후 진행은 양측 코디네이터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한국측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대한제당의 설원봉입니다. 일본측의 麻生 泰(ASO YUTAKA) 사장과 함께 제1분과회의 코디네이터를 맡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1분과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는 한일 양측의 백그라운드 패이퍼 테마가 IT

관련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측의 백그라운드 패이퍼 집필자로부터 각각 20분 정도 테마에 대한 요약 발표를 들도록 한 후,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 후에 플로어로부터의 자유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백그라운드 페이지 자료는 IT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상황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이 페이지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정보·견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본 분과회의 운영 취지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이나 견해를 발표하고, 앞의 발언을 받아 논의 및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논점과 관련된 의견을 발언하는 것이 취지입니다만,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논점을 벗어나는 의견이라도 IT 분야에 속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발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본 분과회에서의 여러분의 발언 가운데, 특히 많은 찬성과 지지를 얻은 의견이나 제안 등은 이후의 공동성명(안)을 심의하는 단장단의 오찬회에 보고하고, 공동성명(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발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표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제한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측의 아소 유타카(麻生 泰) 사장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일본측의 코디네이터인 아소시멘트의 아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설원봉 회장님과 함께 파트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이 회의가 원활하고 폭넓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아소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측의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삼성전자(주)의 진대제 사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었습니다만, 그룹사의 급한 용무로 부득이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삼성전자(주)의 이강식 상무님께서 “Digital Revolution and Korean IT Industry”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강식 상무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식 상무님은 1977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1979년 KAIST에서 전자공학석사, 198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표준원 연구원, 지멘스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1989년에는 삼성종합기술원 이사를 역임하였고, 2000년부터 삼성전자(주) 디지털미디어총괄 신규사업추진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강식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①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Digital Revolution and Korean IT Industry」



李 康 奭

三星電子(株) 常務 (디지털미디어總括 新規事業推進部長)

삼성전자 신규사업추진팀장을 맡고 있는 이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일 원로 경제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백그라운드 페이지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래 이 시간은 전대제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사장께서 해 주시기로 했었으나 지난 3월 9일 저희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모이는 사장단 간담회가 공개롭게 오늘 열리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동일한 원고를 가지고 대신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보혁명과 한국의 IT산업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디지털혁명과 그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과 IT산업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터넷산업과 그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21세기의 벽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혀 모르는 지금 시점에서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1814년에 스팀엔진이 발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 TV, 컴퓨터의 순서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스팀엔진은 1814년, 전화가 1873년, TV가 1920년, 컴퓨터를 1973년으로 본다고 할 때 이들은 공교롭게도 꼭 50년 주기로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들어서서 멀티미디어시대, 즉 컴퓨터와 TV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시대를 가히 정보화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현재 가격으로 1,000불을 내면, 원화로 130만원, 엔화로 11만엔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컴퓨터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 100년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컴퓨터 애니악이 나온 것은 1946년대입니다만, 그 전에도 기계적인 계산기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결국 PC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인텔의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Moore's Law를 따라서 매 18개월마다 속도가 두배씩 좋아지는 것을 따라 온 것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00년에

는 1GHz 시대, 즉 10의 9승(10^9)이라는 계산을 해냅니다. 그것은 생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한 곤충의 두뇌에 해당하는 연산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10배나 100배쯤 좋아진다고 하면 쥐에 해당하는 두뇌의 성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좀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물학전 연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경망세포와 신경망세포가 서로 연관된 그것들이 연결된 개수를 계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야에 연구진들은 보통 인간의 연산능력의 한계를 10^{16} 정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2050년, 2060년에 가게 되면 컴퓨터가 더 발전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컴퓨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두뇌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과 같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어스의 법칙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자기 수명을 다할 것 같고, 이제는 전자식 컴퓨터가 아닌 광 컴퓨터, DNA 컴퓨터,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21세기에 저희들에게 닥친 Digital Life, 우리들이 생활은 두 가지의 커다란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Digital Networking과 Device와 Device간의 Convergence로 되는 결국 Device 하나 내에서 기능이 뭉쳐지는 일과 뭉쳐진 것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가는 그런 두 가지로 움직이는데 오늘의 목표는 일단 네트워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전세계를 이와 같이 엮는 장거리통신망, 해저케이블망들이 전세계를 거미줄같이 엮고 있습니다. 1,000Km 이상씩 가는 광대역 파이버들이 깔려있게 되고, 그런 거점 거점마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 내에서 각 가정으로, 각 사무실로, 또 움직이는 개인과 자동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User Access Network이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을 저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버 투디 홈(FTTH), 또는 파이버 투디 커브(FTTC), 파이버 투디 빌딩, FTTx라는 기술, 또 ADSL, HDSL, VDSL이라고 하는 DSL 기술, HFC, 그리고 IMT2000으로 대변되는 모바일기술 같은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이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Access Network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결국은 기존의 쓰던 전화시스템, PSTN과 요즘 들어 전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완전히 진행된 인터넷기술, 이 두 가지의

과정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정보기기들, 컴퓨터기기, 가전기기, 이동통신기기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진, 많은 인터넷서비스와 전자신문, 전자뱅킹, 방송, 비디오 컨퍼런스, 비디오 온 디맨드(VOD)까지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디바이스 자체도 그 내부에서의 결속이 점점 심해져서 옛날엔 단순한 아주 수동적인, 보내주는 전화만 받고 보내주는 방송만 듣던 패시브한 상태에서 지금은 유지가 프로그램과 서로 상대적으로 즐거움을 주고받는 인터랙티브 상태에 있으며,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AI 연구라든가 이모셔널 웰빙, 영상인식 같은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기계 하나에 인텔리전트들이 연결된 로봇강아지나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그런 기술들이 나타난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산업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산업의 기술동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얻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가정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어 보급되어 나가는 추이를 계속해서 본 것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화입니다. 전화가 1876년에 발명되어서 대공황시기에 잠시 굴곡이 있습니다만, 현재 94%의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는 그 보다 좀 빠른 1873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어서 지금 100%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TV는 1926년에 시작되어 급격히 보급되었고, 세 가지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PC 기술이 1975년 이후 현재 56%의 보급률을, 이동전화가 1983년 이후 2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괴물은 1991년부터 44%의 보급률을 보이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속도는 다른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리 퍼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분야들은 Infrastructure 사업, 망을 깔고 그러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기기들, 그리고 그런 망 위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와 오락성이 있는 것들, 통신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e커머스, 인터넷 액세스, 인터넷 usage들이 일어났습니다. e커머스에 대해선 일본측에서 상세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그 부분은 피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유저들이 얼마나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유저들은 6,400만명이 기록되었었습니다만, 전세계에서 현재 5억명을 넘나드는 그런 숫자가 있고, 곧 2005년까지는 8억명에게 보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Backbone이 필요한데, 전세계 특히 미국을 가로지르는 것과 태평양을 넘는 일, Backbone들의 Capacity가 지금은 Gbps를 훨씬 넘어서 Tbps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의 트래픽라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보다 오히려 적다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나타나는 동향 중에 또 하나 한국과 일본이 특히 강한 분야는 이 인터넷 Usage보다 모바일폰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폰과 인터넷이 결합한 NTT의 i 모드와 같고 한국의 n TOP이라고 하는 모바일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되어서 모바일폰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합쳐진 Anyone, Anytime, Anywhere 같은 그런 기술들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시장 포터블 인터넷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많은 사용자들이 곧 노출될 것이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IT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전자 정보산업을 이와 같이 7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칼럼에는 한국의 IT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쉐어를 나타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DRAM과 display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전세계 산업규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이와 같이 지대한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형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직 마켓쉐어가 작고 다군다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데이터도 이 한국의 데이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저희에게 아직도 많은 IT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익스팬션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률은 두 자리 수에서 50%의 성장률까지 지난 5년간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국가경제와 견주어서 나누어보면 95년만 하더라도 GDP의 5%를 차지하던 것이 지금은 16%를 차지했습니다. 성장률 또한 4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국가경제가 성장하는데 대한 기여도가 50%대인, 그야말로 한국은 IT산업 국가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수출고도 처음에 110억불에서 시작해서 99년에 400억불, 2000년 기준이 600억불이 넘었습니다. 메모리가 격이 강세였기 때문에 그 숫자들은 700억불을 상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국가의 정책으로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서 95년에는 손가락으로 꼽던 벤처기업들이 지금은 2,300개, 그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40만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 비중이 3배, 종업원 자체는 1.3배, 회사수가 2배, PC 보급률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만, 인터넷 보급률 자체는 100배가 커진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뒷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인터넷 통계들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한달간 접속하는 시간이 16시간으로써 미국이나 캐나다의 10시간, 또 일본의 8시간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평균 한번 접속하는 계속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한번 들어갔을 때 웹페이지들을 돌아다니는 비율 또한 평균 96으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대개 시니어 시티즌들이 어떤 정해진 페이지들을 항상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바다를 상당히 도전적으로 항해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홍콩과도 유사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오히려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서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만 서버에서 50만 서버까지 서서히 늘었습니다만, ADSL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IP 어드레스를 쓸 때만 자기가 받고 쓰지 않을 땐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그런 인터넷 유지들이 도메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1,900만, 가장 최근 통계가 2,500만입니다. 이로서 한국은 전국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터넷이 보급되는 나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인터넷 성장에 따른 세 가지 섹터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주거환경은 미국과 달리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모여 살기 때문에 파이버 투디 빌딩, 파이버 투디 커브를 하기 쉬웠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PC방이라고 하는 독특한 모델이 있었고, 모바일폰 보급률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IT산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또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부한 R&D 맨파워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많은 전략을 펼친 바 있습니다. 기업도 또한 네트워크 스테이션들이 급작스럽게 자라는 수요들을 다 감당해 내는 기술개발 설치작업을 다 마쳤고, backbone speed를 늘릴 수 있는 옵티컬 스위치, 옵티컬 파이버 장비들을 꾸준히 개발해냈으며, R&D 맨파워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IT기술을 중심으로 Digital CE 부문이 삼성전자, LG전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며, 또한 삼성, LG, 현대 나 같이 Semiconductor Components를 백업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40%의 패키징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모바일폰을 포함한 e커머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와도 끊임 없이 정보에 대한 활용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비에서는 파이버와 어떤 광산업과 바이오산업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기를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IT산업의 물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IT infrastructure의 투자는 지금 만족할만 하지만 결코 멈추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급 IT기술에 대해서 공동개발이 되어야 하겠고 어느 한 기업체도 그것을 혼자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큰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R&D 맨파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교가 공급해 주고 서로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요즘 중요한 것이 스탠더드입니다. 어떤 표준이 하나 정해지지 않으면 업체가 자라지를 못할 때 표준을 하나 정해주는 일에 업체와 업체, 정부와 정부간의 어떤 전략적 협력이 상당히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액세스 코스트가 1분당 차지하는 금액이 한국의 경우에는 한달에 4만원입니다. 약 3,500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라고 플랫폼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같은 값을 낸다는 것이 한국 인터넷 시장에 걸린차가 되지 않으나 싶습니다. 그 금액은 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주변에 많은 산업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서비스업체로서도 충분히 더 큰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전자업체들은 아직도 컴퓨터는 사용하기 어려운데 보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편한, user-friendly products를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이강석 상무님, 요약해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본측 백그라운드 페이퍼 요약발표가 있겠습니다. 아소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그럼 지금부터 미쓰비시전기(주) 상임상담역이신 키타오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키타오까 선생님은 1953년 교토대학을 졸업하시고 1955년에 교토대학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수료하시고 같은 해에 미쓰비시전기(주)에 입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키타이타미(北伊丹)제작소 소장, 89년 상무취체역 전자디바이스 부문을 담당하시고, 92년 6월에는 취체역 대표이사 사장님에 취임하셨습니다. 98년 취체역 상담역, 99년에 상임상담역에 부임하셨습니다. 그간에 정단련 부회장, 무역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테마는 「일본에 있어서의 e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②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e-Business in Japan - Present and Future -」



北岡 隆

三菱電機(株) 常任相談役

오늘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저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소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에 있어서의 e비즈니스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통산성과 앤디슨 컨설팅의 조사에 이어 금년 1월에 전자상거래추진센터(ECOM)와 경제산업성(구 통산성), 액센츄어(구 앤디슨 컨설팅)의 협력에 따라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에 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B2B(기업간 거래)와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모두 지난번 조사예측을 웃도는 결과를 보였으며, 2005년에는 1달러 110엔의 환율을 기준으로 B2B에서 약 천백리온 US달러, B2C에서는 120백리온 US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B2B의 시장규모 중 e마켓 플레이스의 취급액은 2000년도 시점에서 1.8백리온 US달러로, B2B 전자상거래 총 취급액의 0.9% 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상됐으나 전자정보기기과 자동차 관련 부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신진산업이 시장확대의 전인차 역할을 하면서 2005년에는 약 400백리온 US달러(B2B 전체의 39%)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2000년도 B2C 시장규모는 향후 5년간 약 16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B2C 시장확대의 주요인 중 하나로 휴대 인터넷 보급에 따른 모바일 커머스의 급속한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03년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어 2005년에는 약 22백리온 US달러를 초과할 정도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관청을 포함한 e비즈니스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간 및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다량의 문서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서교환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

제 운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간 및 그 내부에서의 전자인증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G2G)

민간기업에서는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국가 예산으로 실시되는 공사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신청시스템과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G2B)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서비스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G2C)

기업간 거래의 경우 직접제 및 간접제의 자재조달에 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복수 기업간 거래를 가능케하는 e마켓 플레이스의 개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수십개의 e마켓 플레이스가 개설되고 있습니다.(B2B)

개인 차원에서는 인터넷 쇼핑이나 경매 등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쇼핑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물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입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쇼핑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습니다.(B2C)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각종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G2G에서의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등 전자인증시스템과 B2B에서의 Identrus 등의 여신 및 인증기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 종합전기제조회사인 미츠비시전기그룹이 구상하고 있는 e비즈니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e비즈니스의 솔루션 벤디이자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세계적인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e비즈니스를 통해 시장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입안과 그것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이 관건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가능케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는 정보시스템 중에서도 고객의 수요예측을 파악하고 조달상대 기업과 생산계획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확한 납기대응 및 재고비용 등의 절감을 도모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고객의 구매이력을 관리하여 대 고객 서

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 e비즈니스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and 거래처 기업, 조달기업과 연결됩니다. 또 앞으로는 거래처, 조달기업의 인증 및 여신을 받는 인증국, 결제기관, 다수의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e마켓 플레이스, 신청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최종소비자, 물류회사, 상품수수료지로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편의점 등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접속 등 각종 위험요소도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응한 정보보안시스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미쓰비시 전기그룹의 e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솔루션 사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기업정보시스템의 재구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사의 솔루션 사업은 이와 같은 경영과제를 정보기술(IT)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솔루션 사업의 내용을 제품, 제품을 이용한 기술, 서비스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ERP는 IT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 자금, 설비 같은 자산을 유효하게 활용하자는 것으로서 이것은 재래식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체들에서 경영의 효율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는데 이 ERP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옛날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ERP 솔루션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발전전설비라든가 가공기, 엘리베이터 등 산업기기를 제조하는 이른바 종래형 제조업이었던 미쓰비시전기에서 제빨리 ERP를 도입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객들에게 ERP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최근에 유행하는 SCM, CRM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루션 사업에 필요한 제품과 이를 이용한 기술분야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서의 「MISTY」와 「CASUMI」를 핵으로 한 모바일 보안 및 전자인증 등의 정보 보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류, 분석하는 독자적인 제품인 「DIAPRISM」을 사용하여 One to One 마케팅을 가능케하는 CRM 분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등의 기본제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자재조달시스템과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과 전자신청시스템 및 전자입찰시스템 등의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서비스에서는 정보시스템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속통신설비와 내진 설비 등을 갖추고 강력한セキュリティ대책을 실시하는 데이터센터를 통한 호스팅서비스와 하우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 전기그룹에서는 이와 같은 솔루션 사업을 위해 2003년도에 5천억엔, 4.5백만 US달러의 사업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전기를 사례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기업활동의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IT)은 기업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에 따라 원활한 기업간 제휴와 스피드 향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기업활동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대고객 판매활동, 공장의 생산활동, 부품 및 재료의 조달, 고객·대리점·소매점으로의 납기에 필요한 물류 등의 상호연계를 원활하게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즉, 수주, 조달, 생산, 물류, 납품과 같은 각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판매·제고·생산에 있어서의 각 비용의 최적화를 실현시키는 업무 프로세스의 제휴, 이른바 SCM을 도입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종합전기제조회사인 만큼 취급제품군 별로 여러 종류의 SCM 기본패턴을 만들어 기본패턴의 조합과 기능추가를 하였습니다. 가령, 대리점의 유무, 수주생산 등의 생산형태의 차이에 대응한 SCM 패턴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e커머스(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다룰 수 있는 인터넷과, 관련기업 및 기업내에서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을 조합하여 e커머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 소비자와 대리점으로부터의 인터넷 수주, (2) 기업그룹 차원의 구매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조달, (3) 브라우저·전자메일 등을 통한 공급자측과의 전자상담, (4) 전자캐탈로그·승인 워크플로우를 적용한 사무용품과 공구 등 간접재 조달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자재조달에 있어서 EDI를 포함한 Web 상황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 현재 4천개사를 넘는 공급자측에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건수의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전자상거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인터넷의 가구 보급율은 미국의 경우 40%를 넘어섰으나 일본은 아직 20% 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45%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많은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PC의 가구 보급률이 38%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B2C의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통신요금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측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 통신요금이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고정요금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의 두 배, 7천엔을 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2) 한편 일본의 경우 휴대전화의 인구 보급율이 50%에 달하고 있어 미국의 30%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의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인 i모드가 제작년 2월에 서비스를 시작, 금년 2월까지 2년간 약 2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티켓구입과 운세, 멜로디 다운로드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한 B2C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3) 일본 전역에 4만여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는 편의점을 결제와 상품수수의 장으로 활용하는 B2C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 지불을 선호하는 점과 배송비 문제까지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 (4) 일본정부도 코리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전략본부」에서 전자정부의 시스템구축에 돌입하는 한편, IT기본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금년 4월부터 전자서명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금년 봄 국회에서 사생활 보호기본법이 승인된 전망이 서는 등 각종 법적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 IT국가를 목표로 e-Japan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IT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e아시아」 구상을 국민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당사도 e아시아 마켓 플레이스 구상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5) 그러나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통신비용의 문제 이외에 전자상거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현재 산업구조심의회 제안을 반영하는 개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들에 있어서는 진정한 e커머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계열이나 종신고용제라는 전통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간 IT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한일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이고,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 비즈니스가 매우 발달된 나라이고, 통신에 대한 개혁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간에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정부간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좀더 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정부간이 우선 해야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아시아」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이 함께 이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서로 민간기업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각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방식 등을 서로 조언하고 협조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e아시아」 구상을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키타오카 상담역님, 감사합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측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요약발표를 마치고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회의 재개는 10시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9:55~10:15 커피 브레이크>

③ 自由討論

薛元鳳 코디네이터 : 그러면, 자유토론으로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한국측으로부터 “Digital Revolution and Korean IT Industry”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일본측으로부터 “e-Business in Japan - Present and Future -”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베이스로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테마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 등이 계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무선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회사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의견이나 질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渡里 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 도시바의 와파리입니다. 조금 전에 키타오가 선생님과 이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매우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모두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듣고 IT가 제조업과 관련한 제 나름대로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2년간의 IT의 발전상황, 그 가운데에서 인터넷 어용의 보급과 심화는 매우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I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제조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부품·소재 조달에서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디지털화, IT화를 어떻게 하면 신속히 완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피드와 코스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원투윈의 고객대응을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IT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쟁은 개개의 기업들이 일개의 기업 차원에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업간의 여러 가지 제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기업끼리든 국경을 초월한 기업끼리든 기업간의 여러 가지 제휴와 협조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IT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업의 IT 전략을 잘 조화시키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기술의 진보와 인프라의 정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지적은 그야말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동경에서 있었던 경제인회의에서도 한국통신프리텔의 이용경 사장님께서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새로운 기업간협력의 가능성이 제조업을 포함한 종래형산업에 있어서도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시사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한일 양국의 변화, 세계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용경 사장님의 의견은 정말 가치 있는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간의 제휴, 협력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자산업의 예를 두 가지 정도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EMS입니다. 일렉트로닉 매뉴팩처링 서비스의 약지입니다만, 이것은 PC나 오디오제품 등 전자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에서 제조만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종전의 OEM과 다른 점은 복수의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최대한의 생산효율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발주기업과의 여러 가지 조달을 포함해서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전의 OEM과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소니, 마쯔시다, NEC마저도 공장을 분리 독립시켜서 EMS 기업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종전의 경영사상에서 봤을 때는 매우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례는 저희 도시마와 삼성전자와 관련된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마, 삼성전자 모두 반도체, 액정, 브라운관 같은 전자부품산업이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사는 유사한 상품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사가 서로 융통하고 조달하고 있는 부품도 많이 있습니다. 양자간에 비슷한 정도의 수백억엔 규모의 전자부품을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쟁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이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발상을 뒤집을만한 사태들이 각 기업간 제휴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IT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徳吉 大永産業開發(株) 會長 : 조금 전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이제 한일간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를 한일 양국의 경제성장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엔지니어링을 이쪽에 계신 기업간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의 표준화, 스탠더드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간에서는 상호인증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측도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간에 인제육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해 보자, 아까 ERP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작년 5월에 펜타곤에 가서 2000년 문제를 담당한 국장과 얘기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ERP 관련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서 펜타곤에서는 2010년에 육해의 IT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예를 들어서 구매부문에서의 상호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때 로지스틱이 문제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과 같이 인프라가 완벽하게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로지스틱 물류와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e아시아」 구상, 이것은 현재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예정입니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세한 제약

이 걸려있습니다. 이것도 기업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던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IT의 상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신다면 나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에 부산과 후쿠오카간에 광해저케이블에 대한 양해각서를 일본은 큐슈·야마구치경제연합회의 오너 회장님께서 서울까지 오셔서 전경련의 김각중 회장님과의 사이에서 그 각서를 체결하셨습니다. 왕복 광해저케이블이 완성된 것입니다. 현재는 6개가 깔려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들 것은 직선을 만들자, 2002년 월드컵이라는 명목 하에 해저케이블을 까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가 합의되었습니다.

이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교류기구를 만들자, 이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봐야 실현이 안될 테고 인프라 차원에서는 역시 양국의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으니까 오늘 포스코 회장님도 계시는데 포스코에서 협력을 해 주시면 이것은 난습에 이것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지금까지 미국의 움직임이 많이 봤는데 미국의 디지털 보급의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IT는 금융부문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IT화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굉장히 실산이 잘됐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나 나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미국의 디지털 보급의 실태를 보면 인터넷 관련, 인티 이외의 부문에서의 넷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미국을 모델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작년에 오쿠라호텔에서 이 경제인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제가 코멘트를 잠깐 했는데 IT시대에 있어서의 양과 음의 문제점들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구같은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기술적인 전문가 플러스 문화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서 기업간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서 일본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분은 한국 대표이십니다. 김 회장님은 한일 양국의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시기가 아닌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서 처음에 말씀하신 표준화를 한일 양국에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증 혹은 실험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재육성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강석 상무님의 말씀 중에서 GTG의 전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이 상무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李康奭 三星電子(株) 常務 : 사실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부와 정부간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간단한 예로 한국과 일본은 IT기술에 관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출장을 가면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 호텔 오퍼레이터에게 꼭 어댑터를 빌려야 하고 몇 번 물어봐야 하고 어느 호텔에서는 이 방은 되는데 이 방은 안되어서 방을 옮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기술이 미국기술과 차이가 났고 한국은 미국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양국간의 IT 표준화에 관해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라도 지금쯤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TV 채널도 서로 다르고 한국은 미국식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기업체로부터는 바로 시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준화에 관해서는 아까 도시바의 와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도시바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고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다른 기업체들과도 분야별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체와 기업체간에는 서로 이해타산이 맞으면 언제든지 시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좀더 IT쪽에서 서로 표준이 다른 점부터 찾아내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石原 忠志 日産自動車(株) 第一海外販賣本部 오세아니아・아시아一部主管 : 닛산자동차의 이시하라입니다. 이강석 상무님, 키타오카 선생님, 상세한 발표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바의 와따리 선생님께서도

기업간에 걸친 연대 속에서 IT의 활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또 김택길 회장님으로부터도 이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할 시기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매공동기구와 같은 발상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자동차산업은 조금 전 키타오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B2B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B2B는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일 양국간에서 직접적으로 B2B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자동차업계에서의 B2B의 한일간에 있어서의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와 르노기 공동으로 지난 해 연말에 포드, GM, 다임러클라이슬러와 같은 빅3가 보유하고 있는 B2B의 부품조달사업 네트워크 회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자동차업체와 부품회사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 그룹을 넘어선 세계 최고 규모의 온라인 사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버상에서의 사업은 부품조달뿐만 아니라 그 부품거래의 신속함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자동차조립업체와 부품업체의 공동사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쌍방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 코비신트라는 네트산업은 5개의 자동차업체가 함께 출자를 한 회사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20개 정도의 부품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코비신트 옵션이라든지 자산관리,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간의 틀을 넘어선 글로벌한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한일 양국간의 서플라이어들의 글로벌 마켓, 구체적인 시장개척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코비신트라고 하는 사업은 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출발점에 서있는 상황이지만 한국과 일본간의 인프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장래를 향한 커다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체분들께서도 여기에 참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코비신트는 아주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劉常夫 浦項綜合製鐵(株) 會長 : 코멘트 하나하고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양국의 IT부문의 발전은 상당히 눈부십니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라든가 사용시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어도 외형상, 숫자상으로는 크게 발전된 것으로

로 보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부 오락적인 게임에만 활용된다던가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범죄행위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수치만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한일 경제인들 가운데 IT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훌륭한 기술, 훌륭한 수단이 보다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으로는 일본측의 키타오카 상담역께 드리고 싶습니다. ERP의 이용자이시기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나 협력회사, 수많은 거래선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데이터, 정보의 표준화, 프로세스 자체의 표준화라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미쓰비시는 어떻게 이러한 정보의 표준화, 처리방법의 표준화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北岡 隆 三菱電機(株) 常任相談役 :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사실 생산이라든가 SCM, 예를 들어서 수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합리화를 추진하자고 해서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기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저희들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사람들이 했던 방식, 옛날 생산방식 같은 것을 단순히 컴퓨터로 대체하는 작업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그 안에 개재를 하다보면 컴퓨터가 도리어 작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역사를 저희는 수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미 답변이 나왔죠. 새로운 컴퓨터,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직 차원에서 업무추진 방식에서 종업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사전준비 작업으로 실시한 다음에 SCM이나 ERP같은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컴퓨터만 도입해서 말기면 거의 효율적이기는커녕 로스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오디메이드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납기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의 공기의 혼란을 초래하고마는,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조직차원에서 업무방식이 탄력성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점이 저희들로서는 고생을 많이 한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劉常夫 浦項綜合製鐵(株) 會長 : 키타오가 상담역께서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키타오가 상담역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저희 회사가 ERP 도입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의 시스템 전체를 먼저 변화시키지 않고는 ERP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업무혁신의 이름으로서 표준화를 시작하고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아주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 20년 가까이 소위 수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매, 생산, 판매, 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각 부문이 갖고 있었던 전산 프로그램이 약 10만권 정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간에 정보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피디한 의사결정이 잘 안되고 있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부분적인 최적화는 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최적화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대한 일을 하는데 수 백명의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지난 2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아까 IT 인프라를 말씀하시고 G2G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한 기업이 소위 정보경영, IT 경영을 위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e비즈니스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방대한 업무이고 방대한 경영자원을 투입시키고 인내력 있게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득권들, 또는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이 가치가 전혀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내에도 많은 저항이 있고 거래신들도 상당한 저항을 해옵니다. 이런 사회적인 관행까지 깨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국간에 IT 인프라를 얘기할 때도 그러한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서 추진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보다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제가 지금 연장선상에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만, 키타오가 상담역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과 지금 얘기가 연결되는데 e커머스의 변혁을 위해서 종전의 계열, 사고방식 같은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고 동시에 종신고용, 다시 말해서 어떤 전통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종신고용 문제와 e커머스의 도입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라고 할까요 문제점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北岡 隆 三菱電機(株) 常任相談役 :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상관행이라든가 회사의 경영 그 자체를 바꿔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회사에서 유휴 인제가 많이 남아돌거나 부서를 바꾸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 관점에 따라서는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일을 하는 부서가 바뀌거나 실업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고용제도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인 저항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다른 곳으로 파견되었다고 하면 좌천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워크포스 그 자체를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힘을 발휘시키기 위한 직장변경이라든가 업무활동의 변경이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야 하는데 사실 가족들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나가면서 승진해 나가는 것이 자기 아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많이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 사고를 바꾸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실업문제로 지적이 되고 맙니다. 사회적인 사고방식도 우리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변의 이해와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특수한 사정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저희 회사는 규모도 작고 오래되었지만 현재 ERP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야까 유상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우려도 되고 일단 코스트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거래라든지 상대와의 거래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종신고용에 대해 아소 사장님이 질문하셨지만 부서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부서로 바뀔 수도 있고, 조직이 작으면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겠지만 이제는 나이, 학력에 관계없이 그러한 컨셉을 받아들이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저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소 사장님의 전문에도 해당될 것 같고 유상부 회장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밖에 중요한 의견이나 IT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瀬戸 雄三 아사히麥酒(株) 代表取締役會長 : 아사히맥주의 세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의 말씀에 대한 감상과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IT시대를 향해서 어떠한 개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IT에 대한 생각,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개회식에서 산업자원부 장관님의 말씀에 한일 양국의 기업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산업의 협력과 신산업의 협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산업의 협력에 대해서는 기존형의 생산업의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맥주회사입니다. 기존형의 생산업체, 즉 올드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존형의 맥주회사가 IT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상무님, 키다오까 상담역의 말씀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강석 상무님의 맨파워의 교육과 공유에 대해서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키다오까 상담역님의 제조업과 관련된 e비즈니스의 개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사히맥주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매출액이 1조4천억엔이었습니다. 맥주부문만 1조엔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을 아시겠습니까만, 맥주는 신선한 것이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맥주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1983년부터 시작해서 프레쉬 베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정확한 수요예측, 그리고 플렉시블한 생산체제, 효율적인 물류관리와 재고관리 시스템, 이러한 것을 IT와 연결시켜서 시스템화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맥주를 공장에서 만들고 나서 전국의 주류판매점에 배송되기 까지 7일동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맥주를 소비자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업 측면에서 어떠한 IT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내의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1995년부터 저희들은 사내의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에는 1인당 1PC를 이루었고, 1997년에는 영업하시는 분이 정보나 데이터화를 내장한 휴대형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손님들을 방문할 수 있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단골 고객을

을 찾아뵈었을 때는 고객의 정보를 그 자리에서 PC에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인터넷에 실어서 모든 사원, 즉 경영진에서 신입직원까지 전직원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하루에 300건 정도의 난골 고객의 정보가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지금 현재 백주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SCM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2003년에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재 구입처와 함께 전자교환으로 인해서 수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상의 수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재고를 보유하는 연속자동보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은 재고를 부담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도매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IT와 관련된 기업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IT와 관련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IT혁명이 여기 저기에서 제창되고 있습니다.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재 일본경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 서비스가 상당히 발전해서 기존의 일본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회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혁명이 제창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이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취득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T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취급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취급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으로서는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 속에 어떻게 하면 IT를 융합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조업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의 원천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획일적이고 독창성이 없고 창의성이 없다면 새로운 제조업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교육,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21세기를 향한 제조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범람하고 있는 정보 속에서 독창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인재의 고도화를 위한 인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식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을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기반사업에 있어서는 지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힘과 그 분석된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미래를 통찰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기업에 도입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이런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사히맥주 안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감상과 저희 아사히맥주에서 하고 있는 IT혁명, 그리고 제 자신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두 분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제조업분야의 IT라고 하면 아까 닛산의 니시무라 선생님의 말씀에서 잠깐 나왔습니만, 거대한 네트워크가 아닙니까. 5대 메이커가 천억 이상을 하고 있는 메이커와 부품메이커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 부익부 빈익빈의 그러한 시스템이 IT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와파리 상담역님께서도 EMS가 발달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시스코, 휴렛팩커드 등이 EMS를 통해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비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아주 비싼 나라에서 이 EMS가 도입될 경우 과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메이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뛰어날 수도 있다는 기회도 있지만 그러나 EMS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럼 전반적으로도 국가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구조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에서 이 상부님이나 키타오카 상담역께서는 IT가 진전되는 가운데서 제조회사, 메이커로써 생존할 수 있는 기회와 편치, 큰 회사는 더욱 더 커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도 어떤 국가는 잘되고 어떤 국가는 도리어 못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더구나 코스트가 비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 봤을 때는 이 IT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李康爽 三星電子(株) 常務 : 저희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서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반도체 중심이었기 때문에 물류 코스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대형화된 대형TV, 그 동안 저희가 기초적인

로 했던 물건은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대형TV가 된다는지 아니면 냉장고까지도 미국에서 수요는 있는데, 냉장고의 경우 제품 가격은 팔리는 가격이 2천불, 납품가는 그 보다 훨씬 아래일 것입니다. 그 중에 물류비가 대당 3백, 4백불 정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미국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TV의 경우에는 멕시코에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일본기업도 멕시코에 많은 제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등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경우는 미국 내륙 동부인 낙스민, 테네시에 공장을 옮겨야 할만큼 저희가 그러한 물류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전세계에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솔루션도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계에 망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ERP, SCM, e커머스 중에서 솔루션의 하나로는 HP, IBM 등과 최종하지만 일본 업체 한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등 6개 업체가 모여서 e하이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모리를 주고 CPU를 받아 오고 시스템이 가고 하는 e하이텍이라고 하는 대형 e커머스 형태에 저희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北岡 隆 三菱電機(株) 常任相談役 : 아소 사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IT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라고 할까요, 보통은 정보 격차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기업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라는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국가차원에서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링 스태프가 대기업에 많이 있고 도입도 비교적 용이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인제도 부족하고 정보도 입수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간의 격차가 더욱 더 심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어느 일본의 대학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적인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합리화를 추진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식과는 다른 중소기업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각자에 중소기업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이 실제로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서 그곳들의 중소기업의 현황은 사장 자체가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체가 아주 독특한 특화된 생산성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1인당 임금이 비교적 비싸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될 노하우와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금형산업 부문을 예로 들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금형이 상당히 정밀도가 높는데 비해 오히려 코스트가 싼 것처럼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밀가공 부문에서도 역시 중소기업들은 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충분한 지도를 하고 종업원들도 확실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다른 곳에서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제품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쟁원리에 의하면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지는지,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분명 IT를 통한 합리화 추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그 방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만, 그러나 중소기업의 독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은 틀림없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산업성이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지원, 여러 가지 합리화 추진, 수주 같은 것에 대해서 편리성이 높고 합리성이 높은 그러한 정책들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원을 해주면 중소기업의 역량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篠原 徹 日本商工會議所 常務理事 : 일본상공회의소의 시노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키타오가 상담역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일본이 전반적으로 IT를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각론에 들어가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조성금을 저희 상공회의소, 상공회, 오늘 참석하신 공동조합단체인 중앙회, 이러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IT를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금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상공회, 중앙회 이 세 개 조직이 전국에서 약 6백개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PC의 연수를 실시하

고, 이것은 e비즈니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전국 6백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백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IT 투자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맨더로부터의 건적서, 조언을 통해서 맨더쪽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영방침, 여러 가지 독창성 같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개의 중소기업에 걸맞는 IT기술 적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산업성의 지도 하에 관민이 다 함께 민간도 상당히 많은 거액의 투자를 해서 IT 코디네이터협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IT기술만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경영자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실시해서 IT 코디네이터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저회 경제계 조직이 중소기업에 알선을 해 주어서 중소기업이 그 사람들을 저렴한 코스트로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협회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계열화도 상당히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기업이 그 계열하에 2차 하청, 3차 하청에 대해서 각각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IT의 어두운 그림자 부분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러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에서도 이런 비슷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격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면 정보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石原 進 九州旅客鐵道(株) 常務取締役 : JR큐슈의 이시하라라고 합니다. ERP 등 모든 얘기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지회 회사는 IT화가 상당히 뒤쳐진 회사입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도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JR은 아직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IT 추진실을 지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IT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개발부가 있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IT를 다룰 수 있도록 IT 추진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마케팅상의 데이터가 있습니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합적으로 마케팅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IT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티켓과 같은 것을 물론 이것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 티켓을 IT를 활용해서 인터넷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의 업무효율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ERP, 그리고 e-비즈니스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공부가 된 회의였습니다. 이야기가 좀 바뀔지라도, 큐슈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하카타와 부산이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후쿠오카와 부산간의 IT 광파이버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로컬 대 로컬로 그런 프로젝트가 큐슈와 부산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코리도구상 중에서 사람의 교류라고 하는 인적교류를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IT 코리도구상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큐슈·한국 IT 지역조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큐슈의 경제산업국 안에 큐슈대학 안에 있는 미나가와 요시오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안건을 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달 안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지만, 6월중에 한·일(큐슈) 경제교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IT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큐슈·한국, 한일간에 IT 경험관계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FTA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호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찬반양론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예를 들어 파일럿프로젝트로써 큐슈가 한국과도 가깝고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의 남부와 함께 파일럿프로젝트로 Free Trade Area를 한번 시범운영으로 관세가 없는 자유로운 FTA 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큐슈만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적인 교류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은 비틀이라고 하는 제트포일 배를 갖고 있습니다. 7~8년 전부터 하카타-부산간에 이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4만명 정도로 커다란 적자를 끌어안아서 아주

고전을 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굉장히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비즈니스가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입니다. 1998년에는 4만명이었던 것이 24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 6월에는 세 번째 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멜이라고 하는 배도 있습니다. 크루즈선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선박과 선박간의, 항구와 항구간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한일 양국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형태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2년에는 한일 양국간에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 월드컵 때는 그야말로 항공편이 공항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대통령도 일본에 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만, 하네다공항이나 나리타공항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항구를 활용해서 인적인 교류를 하고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쿠오카-부산간은 이런 상황입니다만,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50만명의 인원이 편도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분이 일본에 갈 때는 비자가 없습니다. 잠정 조치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를 운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 편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협의해서 빨리 협정이 이루어져서 무비자로 한일 양국간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IT협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인적교류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경제교류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호교류라고 하는 것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渡 福岡県 知事 : 전반적인 IT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점심 이후의 시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측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소위 행정의 전자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자정부부를 만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행정의 분류, 인증제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응해서 저희들의 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이버 시청이라든지 사이버 도청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실질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 복지시스템, 혹은 의료시스템,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사회시스템, 그러한 총괄적인 것을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주안점으로써의 골격은 아마 3년 이내에 구축되리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한국측의 지금 현재의 계획, 내지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은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력 관계는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金德吉 大永産業開發(株) 會長 : 아소 지사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통산성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한일 양국간에 일본의 통산부와 한국의 산업자원부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의견교환,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일본보다 앞서서 이미 제기가 되었고 많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통산성에 계시는 분들이 모델 샘플을 몇 가지 일본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제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이 더 강력합니다. 지사의 직선제도의 차이도 있으니까 한일 양국의 모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과 연동을 시켰을 때 한국은 경찰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등 경찰청과 관련된 시스템의 차이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통산성에서 이미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요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만, 지난 번에 오너 회장님께서 추진하셨던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를 했으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철의 유상부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IT가 게임이나 패션 쪽으로 치닫는 등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강점은 역시 제조에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ERP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펜타곤을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 펜타곤에서마저도 이해조정을 하면서 결국 2010년에 본격적인 돌입을 하겠다, 2010년까지 기입에 대해서 여유를 주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입이 도산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생산자동차 중에서 일본의 자동차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분야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IT화가 진전되고 있는 면에서는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사 쪽에서 IT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용은 3만엔, 4만엔을 내고 60엔의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만달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미들 패키지 푸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양극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면서 어떤 새로운 상품화 개발 같은 것들이 새로운 재료로써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사히맥주에서도 많은 제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니즈에 건맞는 제품개발, 이것이 IT 분야를 활용함으로써 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제가 유상부 회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표준화의 문제라든지 아까 이 상무님께서 미국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포괄적인 내용도 좋고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한일 양국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을 이끌고 계신 분이셔서 감히 부탁을 올렸습니다.

劉常夫 浦項綜合製鐵(株) 會長 : 정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IT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IT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보다도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전통산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전통산업에 따른 IT화, 그에 따른 표준화 같은 것이 많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일 양국간에 IT산업 자체가 창출해 내는 경제적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토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여기계신 두 분 발표자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가장 늦은 자를, 가장 늦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인가, 전자정부를 만든다거나 또는 기업간, 국가간에 B2B, G2G의 정보공유에 의한 처리를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은 되지 않고 말 것이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문이 그것이 산업이든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 국가든 한쪽이 앞서 나가면서 자기가 나간 길을 그 다음 상대방에게 빨리 빨리 알려줘서 먼저 나간 사람들은 항상 시행착오도 범하게 되고 비용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것을 지적소유권이라고 주장하지말고 알려주게 되면 따라와서 점점 커져서, IT기술의 특색에 몰방울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점점 커져서 더욱 더 큰 가치를 띠게 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만들어 나가자, 다시 말해서 식세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포럼하고 관계없이 FTA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업부문이 일본과 한국간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경쟁관계에 있기고 하고 가끔은

보완관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정리해서 FTA를 하려고 했다가는 물론 일본에서 지금 10년 정도 상당히 길게 잡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문이든지 할 수 있는 부문이 먼저 해 나가는 것을 다소 시행착오까지 각오하고 해나감으로써 결국은 전체적으로 양국간에 소위 공동이익이라고 할까 또는 이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데 한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辛東烈 成門電子(株) 會長 : 저는 성문전자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열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소재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이강석 상무님께 또한 일본의 경제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들은 비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같이 연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제가 일본의 반도체에 종사하시는 몇 분을 만나 뵈고 들을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히타치의 반도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도시바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중에 자기들은 앞으로 메모리쪽의 반도체는 삼성전자에 앞으로 많이 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경영체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르다, 그러나 자기들은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뒤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نيسان자동차의 이시하라 선생님께서 참석하셨고 아까 발언도 하셨는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기아자동차가 경영할 때는 아마 주주이면서 전문경영인으로 그 당시 경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후에 상당히 경영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문경영인이 경영할 때와 현재 오너경영인이 경영을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오너경영인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오너경영인과 전문경영인의 차이, 이강석 상무님께는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نيسان자동차의 이시하라 선생님께서도 혹시 제 의견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奭 三星電子(株) 常務 : 반도체산업이 워낙 과감한 시설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룹차원의 사훈을 걸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만, 제가 저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영층이 내린 의사결정이 최하 말단사원까지 내려가는 전달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장이 임원, 임원이 부장에게, 부장이 과장에게 하는 다단계방식을 저희 삼성전자 내에서도 반도체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계층별회의라고 있어서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과장, 대리까지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계층별로 발언을 하고 해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계층별 간담회가 삼성전자의 대부분에서도 벤치마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결정이 되고 나서 전파하는데 까지 더 빠른 것과 3조 4교대 해나가는 그 공원들에게도 전파되는 속도 또한 빠르고 저희들 잘 모여서 잘 놀니다. 기흥에 가면 1년 내내 체육대회하고 노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 공원들간에 단합된 힘과 의사결정 속도와 동일한 목표의식의 공유 같은 부분들이 저희 경쟁력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石原 忠志 日産自動車(株) 第一海外販賣本部 오세아니아・아시아一部主管 : 닛산자동차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너경영자와 전문경영자의 차이, 오히려 토요타자동차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회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르노와 제휴하면서 르노에서 이른바 프코의 경영자라고 부르는 사장님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덕분에 닛산자동차의 업적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의 업적을 보더라도 실제로 좋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 회복이 된 큰 이유중의 하나가 역시 지금까지 종래형의 경영방식을 취해왔습니다만, 지금 이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스피드, 톱다운형 의사결정, 이것이 크게 업적이 개선되는데 큰 작용을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劉常夫 浦項綜合製鐵(株) 會長 : 아까 기아자동차의 경영성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위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영과 주인이 없는 기업의 경영이라고 분류하기 보다는 주인의식이 있는 경영자와 주인의식이 없는 경영자의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너가 경영을 하게 되면 자기와 자기 친인척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극단적 자

본과 경영의 분리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기업의 경영을 좌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은 같은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다소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화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미국의 자본주의는 웨어홀더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고 일본의 자본주의는 애플로이스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소위 종신고용이라든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들이 고용을 확보해줌으로써 경영을 해나가는, 앞으로는 점점 세계화되면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ERP라든가 SCM을 보시면 상당히 서구적인 자본주의 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의 이익이 우선하는, 주주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봐야 하고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경제시대, 신경경제시대에 기업인들이 명심해야 될 하나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영자든지 주인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그 주인의식은 비단 경영자뿐만 아니고 사원까지 같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주주가 위임한 소중한 자산을 신의와 성실을 다해서 경영하는 자세가 이 시대의 경영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林英虎 韓國輸出保險公社 支社長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직원의 입장으로써 느낀 소감을 한마디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제가 IT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IT에 관한 산업으로 인해서 결국 직접 구매자와 한국의 수출상품이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국의 무역역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타오까 상담역님과 일본상공회의소의 시노하라 상무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본상회에서는 3년간에 백만명에 대해 IT 코디네이터 자격을 주고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일본이 편의점 약 4만개에 대한 개월화를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지역내의 개월화는 파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 등 제 3국의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는데는 혹시 이것이 일본의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항상 고심하는 제 3국의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본측의 키타오까 상담역으로부터 제 3국의 걱정과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北岡 隆 三菱電機(株) 常任相談役 : 방금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의 편의점을 계열화해서 그것을 독점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 합니다. 제 발표 내용을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드린 것 같아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결코 그것은 계열화가 아닙니다. 기존의 편의점을 활용해서 거기에 정보를 건네주고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소위 인터넷 구매라고도 합니다만,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것을 좀더 원활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품을 인도 받습니다.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써 편의점을 활용하는 것이지 편의점을 전부 독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자체는 한국의 기업, 한국의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도록 제휴만 할 수 있다면 편의점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결코 저희가 일본의 편의점을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이후의 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자유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코디네이터로써 간단히 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산업에 대해서 양국기업인으로부터 발표가 개셨습니다만, 현재와 미래에 있어 기업경영은 물론 모든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인터넷이 차지하는 큰 비중을 이 자리에서 새삼 인식할 수 있었던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양국기업간에도 여러 가지 제휴나 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협력해 갈 분야도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플로어로부터도 지적이 있었습디만, 이제는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소 사장님, 총괄을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오늘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관해 두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테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를 듣고 저희가 진부 정리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러한 포괄적인 흐름이 앞으로 IT산업의 협력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IT산업 협력 추진에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薛元鳳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분과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훌륭한 통역을 해 주신 통역 두 분께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박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사무국의 안내가 있겠습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분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아소 유타카 사장님, 설원봉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2) 第 2 分科會 (테마 : 構造調整 속에서의 韓日 兩國의 協力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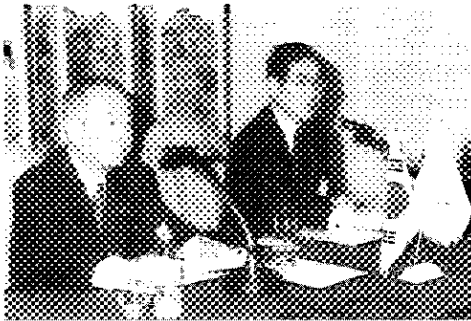


司會 [申榮敏 (社)韓日經濟協會 理事, 以下 同一] : 지금 부터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제2분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2분과회 사회를 맡게 된 한일경제협회의 신영민 이사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맡아 주실 양측 코디네이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측 코디네이터는 1966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1976년에 일본 상지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국제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셨으며, 1986년부터 한화제팬 대표를 역임하시다가 현재 (주)한화유동 대표이사 사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정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다음으로 일본측 코디네이터는 1957년 北海道(홋카이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시고 石川島(이시가와지마)重工業에 입사, 공장장과 항공우주사업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石川島播磨(이시가와지마하리마)重工業 대표취체역 부사장으로 계신 大慈彌 省三(오지미 쇼조) 부사장님이십니다. (박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후 진행은 양측 코디네이터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한국측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한화유동의 김정입니다. 일본측의 大慈彌 省三(OZIMI SHOZO) 부사장과 함께 제2분과회의 코디네이터를 맡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분과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는 한일 양측의 백그라운드 페이지 테마가 “구조조정 속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입니다만, 한국측은 금융협력분야를, 일본측은 산업개전분야를 중심으로 양측의 집필자료부터 각각 20분 정도 테마에 대한 요약 발표를 듣도록 한 후,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 후에 플로어로부터의 자유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백그라운드 페이지 자료는 테마에 관련된 상황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이 페이지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정보·견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본 분과회의 운영 취지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이나 견해를 발표하고, 앞의 발언을 받아 논의 및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논점과 관련된 의견을 발언하는 것이 취지입니다만,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논점을 벗어나는 의견이라도 본 테마에 속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발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본 분과회에서의 여러분의 발언 가운데, 특히 많은 찬성과 지지를 얻은 의견이나 제안 등은 이후의 공동성명(안)을 심의하는 단장단의 오찬회에 보고하고, 공동성명(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발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표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제한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동시통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빨리 말씀하지 마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본측의 大慈彌 省三(OZIMI SHOZO) 부사장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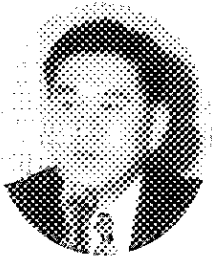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일본측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이시가와지마하리 마중공업의 오지마입니다. 오늘 김정 사장님과 함께 파트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활발한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측의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金東煥 연구위원께서 “한일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 -경제패러다임과 금융협력패턴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동환 연구위원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이분경제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을 거쳐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를 수학하시고,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 연구위원 및 도시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를 보면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장래”, “IMF체제 후의 한국-경제민주화의 행방”, “최근 한국경제의 현상과 전망”, “대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등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동환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①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韓日 金融協力の 現況과 課題 - 經濟패러다임과 金融協力패턴의 變化 - 』



金 東 煥

韓國金融研究院 研究委員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동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2분과회의 테마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동안 한국에서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 일본 재무성의 관세 및 외환 심의회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이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대신 김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드린 대로 “경제패러다임과 한일 금융협력패턴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이 되어있어서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과도한 경상수지흑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경제는 양질의 노동력과 자연자원을 일본의 자본·기술을 접목시켜서 소위 ‘아시아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아시아의 기적은 일본경제 버블의 붕괴와 함께 깨지기 시작하여 급기야 1997년의 외환위기로 크게 약화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APEC 경제권의 설립을 주도하고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위해 금융·기업에 관한 미국식 기준을 국제적인 스탠더드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확대·보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유럽은 ASEM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7년 홍콩반환을 계기로 주변국을 화교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등 남방정책을 추진하여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아시아를 중심으로 서구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방불케하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시장자본주의, 글로벌리즘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경제시스템의 구조조정 등에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과거 유사한 경제성장패턴을 지녀왔던 한국과 일본이 향후 국제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더욱 더 활발히 전개될 시장과 국가,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대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과거 30년 정도 한일 자본거래, 금융협력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서 앞으로 양국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간 자본거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997년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편입되기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본을 공급해 왔습니다. 상업차관, 직접투자,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되는 장기자본은 물론 이기니와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1년 미만의 단기자금 공급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예컨대 공공차관의 경우는 사실은 한국이 개도국 상태를 벗어났던 80년대 이후에도 유독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해소요구에 따라서 일본이 기술개발자금을 중심으로 공공차관을 늘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차관은 90년대 초반에는 거의 종결이 되었지만 특히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 확장 및 석유화학계열 공장건설 등에 집중 투자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는 주로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직접투자의 경우는 70년대 1차 오일쇼크 이후 전기, 전자, 섬유산업 등 에너지 고소비형, 노동집약형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편입되고 난 97년 이후에 상황이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어제 박용성 회장께서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97년 이후로 일본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직접투자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62~90년간 우리나라 전체 직접투자의 거의 50% 정도를 차지했던 일본의 비중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격감하게 됩니다. 선두의 자리를 미국과 EU에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나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숙박업, 운수·창고업 등 서비스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80년대 중후반에 비해 내용면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간 자본거래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은행간 대출-차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식, 채

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편입되기 이전 시점인 9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일 채무의 공식규모는 약 240억불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로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과의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일 채무현황을 보면 66억불 정도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미 채무는 116억불 정도 됩니다.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으로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75%, 영국이 15% 정도 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의 그것은 1% 전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금융협력패턴을 약간 산업연관분석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이라고 하면 서비스 산업이나 무품·소재산업과 같이 다른 산업이 발전을 해야 금융업도 발전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금융산업은 그 금융산업의 발전 자체가 다른 실물 산업, 타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또한 타산업 발전이 금융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전후방인쇄효과가 모두 높은 그런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에 있어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매우 밀접한 상호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실물과 금융부문의 밀접한 상호연관관계는 다행히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갈 때는 플러스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둘 중의 어느 한 부분이 빠격거릴 때에는 마이너스의 시너지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들어서 은행의 부실채권문제 등 금융부실이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실물경제의 침체가 다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경제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국제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한일간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이 일본경제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그 반대로 일본 금융산업의 발전이 한국경제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85년에는 일본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가 8배 정도 높았으나 90년에는 그 차이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일간의 경제관계는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일본에 일반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양국의 경제발전은 서로 상대국의 금융산업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사실이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한일간의 금융협력은 첫 번째는 한국의 실물산업에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과 더불어서 양국의 금융협력은 서로 실물경제 발전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85년과 90년도의 산업연관분석의 결과일 뿐이지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금융산업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금융산업이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갖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양국의 금융산업이 과거에 비해서 산업연관효과가 낮아졌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금리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한다면 양국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양국은 장기협력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양국은 장기협력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뒤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간의 금융협력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되는 일본의 90년대는 버블이 깨지는 시대였고 장기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였고, 그리고 일본의 70년대 내량으로 발행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국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는 결국은 한계기업의 도산을 지연시키고 금융기관의 리스트럭처링을 지연시켰으며 이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산업연관효과를 낮출뿐더러 경제전체의 시너지효과도 낮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양국에서 경제부양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저금리정책은 양국간의 장기금융협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과거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대의 자본공급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자본공급한 그 규모에 비해서 한국의 대일 적자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자본공급의 자세는 97년 이후에 미국이나 EU 보다는 더욱 더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자본협력이나 금융협력에 관한 문제가 경제현안으로 부각이 된 적이 기

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한일 경제관계의 무게중심은 무역 등 실물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일 양국의 경제현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역적자 해소문제 같은 것인데 이러한 양국 경제현안은 정부나 은행 등 소위 보이는 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는 손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양국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해소, 기업 구조조정의 절박성,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보이는 손에 대한 막연한 기회는 수많은 불특정의 기업과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서 양국 금융협력의 장과 수단을 제약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97년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본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이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생각이 적었기 때문에,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기대보다는 보이는 손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결과가 97년 이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97년 IMF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는 보이는 손에 의해 경제를 운영해왔던 많은 아시아국가들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소위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한 장기적 유대관계를 근시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은행이탈과 직접금융시장의 급팽창 및 자본거래의 단기화와 같은 자금흐름상의 변화에서는 물론이거니와 IMF 이후 대일 및 대아시아 무역의존도가 저하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의 정부와 은행은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없으며 재정기회(arbitrage)를 노리 국경과 전통을 초월하여 초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이 앞으로 금융협력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가 경제패러다임 변화의 와중에서 주춤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한일 경제협력의 패턴은 과거와 같은 보이는 손에 의한 협력으로부터 시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협력으로 변해갈 것이며, 둘째, 이를 위해서는 협력의 유인이 존재해야 하는 바, 향후 양국 관계는 그 동안의 비경제적 특수관계로부터 경제적 보편관계로 전환해 갈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현실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향후 양국은 부실대출채권(non performing loan) 및 부실회사채(junk bond)를 유동화할 채

권시장은 물론 비효율적 기업의 경영권을 자유롭게 양수·양도할 수 있는 M&A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근시안적 이기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보편관계로 변화해 간다고 해서 양국간 장기 협력관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IMF 이후 세계경제의 유일한 기관자 역할을 해 온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한일간 금융협력의 유인과 의의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향후 양국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고 일본이 세계 최대채권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세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경우 금융협력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일간 자유무역지대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심화시켜 적자보전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본조달부담을 더욱 높일 것이며, 더욱이 엔화국제화가 진전되고 일본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센터로 부각되어 일본이 세계적인 채권국으로 그 위상을 높여감에 따라 우리나라는 채무만기연장 및 신규자금지원에 있어 일본의 협조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엔화국제화가 초래할 지도 모를 국내산위 공동화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간에 자본·기술·공장·인력 등을 원활히 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협조가 절대적인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양국이 시장을 통한 금융협력 게임을 수행해 감에 있어 한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장을 불모로 만들어 양국간 금융협력의 수단을 제한했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국가 및 정부를 무력화하고 경제활동의 근간인 재산권을 불확실하게 하여 경제협력의 가능성 자체를 소멸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일 양국에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시장과 정부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비생산적인 패러다임 논쟁을 종식시키고 아시아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를 불황의 늪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김동환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맞는 양국의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 이 보고를 통해서 다음 커피브레이크 이후에 있는 토론 시간에 많은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측 백그라운드 페이퍼 요약발표가 있겠습니다. 오지미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김동환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측에서 경제단체연합회의 内田 公三(우찌다 코조)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찌다 사무총장님은 1963년에 도쿄대학 박사과정을 종료하셨고 그 후 같은 해에 사단법인 경제단체연합회에 입국하셨습니다. 그 후 산업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역임하시고 97년도에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다리역할로써, 산업정책의 전문가로써 산업경쟁력회의 등의 설치에 노력을 많이 하였고, 또 일본 총리대신을 비롯하여 정부 정상에 산업계의 의견을 지금까지 전해오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일본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계의 대응”입니다. 그럼 우찌다 사무총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②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日本の産業構造調整과 經濟界의 對應』



内田 公三

(社)經濟團體連合會 事務總長

현재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길고 심각한 불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화, 혹은 IT혁명이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기업은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 일본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으나 본인은 언젠가는 일본경제가 되살아나는 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에게,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사를 되돌아보면서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계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과 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평소 본인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발표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戰後 復興期>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경제는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벌해체와 농지개혁, 노동관련 개혁을 3가지 기본축으로 일본경제

는 철저하게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反트러스트(trust)법을 모델로 삼은 ‘독점금지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 독점금지법은 당시 일본경제의 실패를 무시한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어서 그 후 산업정책은 이 독점금지법(이하 ‘독금법’)의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형태로 산업분야별 개별적 진흥책에 따라 산업육성이 도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업진흥 임시조치법’, ‘전자공업진흥 임시조치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세제상 혹은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위한 것이었으나 그 중심은 독금법의 적용제외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화 카텔(Kartell : 기업연합) 등 기업의 공동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貿易 및 資本自由化에 대한 對應>

그 후 일본경제는 순조롭게 발전하여 1956년 [경제백서]에 ‘더 이상 戰後가 아니다’ 라고 선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所得倍增計劃’이 발표되어 그 후 더욱 비약적인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외국국가들은 일본에게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호무역, 산업보호육성시대에서 개방경제체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역이나 자본이 자유화되면 순식간에 외국기업들에게 시장을 식권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산업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단련의 石坂 泰三(이시자카 타이조) 회장님은 의견한 자세로 ‘자유화야말로 오히려 일본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하셨습니다. 무역이나 자본의 자유화가 오늘날의 일본의 번영을 이룩한 점을 생각하면 실로 탁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자유화 대응을 둘러싼 일본 산업정책에 대해 통산성과 경제계 사이에서 커다란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통산성의 인식은 일본경제는 외국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과당경쟁이며 경기변동이 심하다는 등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계, 금융계, 학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한 ‘관민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그 체제 하에서 설비투자를 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단련은 자유화는 일본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며 적정한 생산규모나 생산형태는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기업간 自主調整을 해야 한다며 ‘자주 조정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독금법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통산성 정책은 ‘특정산업진흥 임시조치법안’으로 국회에 3차례 제출했으나 廢案이 되어 채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이 법률 대신 석유화학, 화학섬유, 종이 펄프, 펠로알로이(ferroalloy)에 대해 관민협조간담회가 구성되어 실질적

인 투자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이 개입한 형태의 조정은 회사마다 자사 몫을 챙기기 위해 ‘몫 챙기기 경쟁’이 발생하여 그 결과 오히려 과잉설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후 오일 쇼크 이후에 나타난 과잉 설비에 따른 구조불황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원자재 조달, 생산, 유통, 가격설정과 같은 동상적 사업 활동에 지나치게 행정이 개입하게 되면 갖가지 폐해가 일어나는 단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일 쇼크와 産業構造調整政策：産業政策에서 競争政策으로>

1973년 가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 이로 인해 원유가격이 4배나 급등하는(바렐 당 3.66\$→11.65\$)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 수입에 의존해 온 일본은 석유가격 급등에 따라 경제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특히 ‘광란의 물가’라 표현될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수지도 악화됐다. 소위 말하는 오일 쇼크가 터진 것입니다. 그 전에 발생한 71년 8월 닉슨 쇼크로 인한 엔高와 겹쳐, 그때까지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중화학공업이 일변하여 과잉설비를 안게 되어 자력으로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구조불황업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난런은 구조불황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면 독금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계 내부의 설비폐기나 신·증설 제한 칼텔을 맺기 쉽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통산성은 1978년에 ‘특정불황산업안정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관 주도 하에서 과잉설비 처리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산대신 등 주무대신이 平電爐, 합성섬유, 조선, 화학비료 등 특정 구조불황산업을 지정하여 설비처리, 신증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정기본계획을 작성,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설비처리 등을 하면 일본개발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독금법과의 관계입니다. 주무대신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행위는 특정산업의 불황극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독금법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지만 주무대신이 공동행위를 지시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무렵부터 독금법이 서서히 일본기업의 기본적 경쟁규칙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산업정책사상 한 획을 그은 전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

‘特安法’이라 불리운 이 법률은 5년간의 시한입법이었으나 이 법률이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기초소재산업은 심각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 1983년에는 ‘특정산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 이어서 87년에는 ‘산업구조전환 원활화법’이 시행되어 과잉설비의 원활한 폐기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법률의 목적은 이전의 ‘특안법’과

마찬가지였으나 시대 요청에 따라 민간기업의 자주성을 보다 존중하고, 독점법의 중사와 개방경제체제를 견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독점법과의 관계를 보면 사업제휴에 있어서는 주무대신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조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과잉설비 처리에 대해서는 독점법상의 적용제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구조적 불황 산업의 구제라 하더라도 독점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정책은 완전히 독점법의 규범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이 부류에는 산업정책에서 경쟁정책으로의 흐름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規制緩和 推進>

1980년 가을, 향후 행정의 발본적 개혁안을 검토하기 위해 上光 敏夫(도코 토시오) 전 정단련 회장님을 회장으로 한 임시행정조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오일 쇼크 이후 성장을 둔화를 비롯한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급속하게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취해져 온 정책과 제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국가들을 따라잡고 추월하자는 식의 이리 제도를 발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電電公社, 專賣公社, 國鐵의 3공사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규제완화의 추진입니다. 일본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공적 규제는 전후 부흥기나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민간경제의 활력발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산업별 참여나 설비투자, 생산량, 가격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는 ‘원칙 자유’로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나 노동자의 안전, 건강 유지, 환경보전, 재해방지 등의 ‘사회적 규제’는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개혁은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행정개혁위원회’로 이어졌으나 그 동안 정단련도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상당정도 실현되고 그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世界化(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對應>

냉전붕괴 이후 기업은 이전보다 더욱 국제적이고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있어 기업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케 하는 환경 정비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비용구조의 시정,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정비, 법률·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이 실시해

은 정부에 의한 산업 보호·육성 형 정책이 아닌, 기업의 자주적 재편 원활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국제적 대등입장, 동등조건(equal footing)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규제완화 추진은 더더욱 중요하지만 일본정부는 고비용요인 중 하나로 이겨져 온 법인세를 99년에는 거의 선진국 수준(실행세율 40.87%)으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97년에는 오랫동안 경단련이 요구해 온 지주회사의 解禁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경단련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아래 관·민이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하고 서로 협조하여 일본의 경제구조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경쟁력회의’ 설치를 요구한 결과 1999년 小渊 惠三(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하에서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관측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하 방위청장관을 제외한 全閣僚가, 경제계측에서는 경단련의 今井敬 회장님 이하 17명의 경제인으로 구성된 과거 유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단순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속하게 구체적 입법화나 시책 실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설비를 처리할 때 세제상 우대조치를 담은 ‘산업협력제생 특별조치법’이나 기업의 사업 재구조화를 용이하게 하는 기업결합법의 제도 정비, 나아가서는 국제 회계기준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본 회계제도 정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기업 구조조정이나 제휴, 합병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 통신 분야에서는 은행과 증권 혹은 통신과 방송과 같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소위 ‘산업융합’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한때 우려되었던 日本債 세계금융공황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의 불량채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우체국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라는 과제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일본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불황에 놓여 있으나 이상에서 언급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기업의 자주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다시금 경제는 활성화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韓日 産業協力體制>

일본 기업들의 세계화 대응에 있어 한일 산업협력체제의 가일층의 긴밀화는 일본국내 환경정비와 함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일양국 산업계에서 대규모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이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유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

다. 현재 WTO의 다각적 무역자유화와 병행하여 양국간·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세계적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일양국도 각각 싱가포르, 칠레와 FTA 체결 교섭을 개시하는 등 통상전략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어 한일 FTA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단련은 2000년 10월에 개최한 전경련 정상과의 간담을 통해 양단체가 협력하여 검토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정단련 내에 한일산업협력검토회를 설치하여 한일 산업협력의 이상적 모습과 FTA에 대한 일본 산업계의 대응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을 기준으로 중간보고를 정리하여 양단체간에서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정단련 검토회는 (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계신 大貫 미쓰이불산 고문께서 단장을 맡고 계심)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플랜트(plant) 등 주요업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미 3차례 각 업계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전기·전자산업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양국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반도체, 액정 등 전자부품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해 있습니다. 협력형태로는 투자보다도 제휴가 주류였다고 생각되나 향후는 자본참여나 JV설립 등 협력형태가 다양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욱 수준 높고 세세한 협력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FTA가 개기가 되어 양국의 제도적 틀이 공통적으로 정비된다면 전기·전자산업의 이러한 움직임이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사 및 향후 일본과 한국의 산업협력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에게 일본경제성장의 최대요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무역 및 자본 자유화로 일본경제를 국제경쟁력의 거친 파도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화의 오늘날 더 이상 국가를 해외경쟁에서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에서 민’으로의 흐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유, 투명, 공정한 시장실현과 기업이 국제적으로 대등한 입장,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율, 자기책임 원칙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기업의 창위가 발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기업의 구조개혁이 대담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오늘 본인의 말씀이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한일양국의 경제가 더욱 번영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우찌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경제의 성장요인은 이른바 국제경쟁의 과고에 노출되었는데 있다, 정부는 이른바 환경정비에 임해야하고 기업은 자력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측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요약발표를 마치고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회의 제개는 10시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9:55~10:15 커피 브레이크>

③ 自由討論

金 正 코디네이터 : 그러면,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국측으로부터 “한일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일본측으로부터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계의 대응”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베이스로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테마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 등이 계신 분은 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무선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회사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의견이나 질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발언순서는 양국이 교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측에서 말씀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李地平 LG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김동환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는 좀 생략된 부분도 있었습니만, 한일 산업 연관효과와 기업의 일환으로 집목해서 한일간의 금융협력이 상호이익을 볼 수 있고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좋은 발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분석은 9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만,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협력에 따른 기대이익을 절반 수준으

로 줄이고 협력의 비용을 2.5배에서 4.5배로 늘리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이자율이 11%, 혹은 20%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한일간의 금융 상호협력의 균형점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서 97년 한국경제가 IMF 체제 이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일간의 금융협력의 이점이 크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일간에 금융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한일 양국간의 금융기관의 경영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금융협력의 이점이라든지 활용 가능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일단 증권시장을 통한 한일간의 금융협조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나 일본의 사정을 생각할 때 엔화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으로는 벤치시장을 한일 양국간에서 주식시장으로 통합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협력의 논의를 좀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煥 韓國金融研究院 研究委員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일간 금융협력의 이론적으로는 협력의 유인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금융기관 경영의 불안정성 등 요인에 의한다, 그 대책을 말해달라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대책은 제 발표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행의 거래, 은행과 기업간 거래, 그리고 각국의 은행간 거래는 시장을 거의 도외시한 채 이루어졌던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대출, 론이라는 상품이 사실 시장을 거치지 않는 인적관계, 관계를 중시한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이 도외시된 측면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은행간 거래, 은행과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은행이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는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설채권 유동화시장, 그리고 아시아채권시장입니다. 사실 아시아채권시장 육성방안은 일본 재무성의 주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채권시장, 그리고 자산유동화시장에서 은행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할 것이고 또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컨대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구조조정 현실에서 유동화시장을 어떻게 활용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시장은 크

게 얘기해서 부실자산시장과 M&A시장, 부실기업시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실자산시장은 NPL, 은행의 부실채권시장이 있고 정크본드와 같은 부실회사채, 사채시장이 있습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등은 그냥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유동화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회사채를 시장에 내놓아서 유동화시킬 경우에 은행은 상당한 유동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PL 같은 경우,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0% 이상이 토지 내지 건물에 담보가 붙어있는데, NPL시장은 부실부동산시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실채권시장의 유동화라 했을 때는 채권의 유동화라는 측면 외에 부동산의 유동화라는 측면도 또한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결국 은행들이 과거와 같이 대출차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동화시장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부동산 등을 유동화할 경우에는 자신의 유동성의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채권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과거에 은행과 기업간 관계는 주로 신용장을 위주로 한 거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신용장을 중심으로 한 무역거래는 사실상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에는 이 신용장을 중심으로 한 무역거래도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시아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무역거래의 바탕이 되어 있는 신용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역신용도 또한 유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은행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M&A 시장 활성화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찌다 사무총장님께서도 과거의 한일 간 협력은 주로 세후 정도였지 자본참여 같은 형태는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부터 한일 양국 간 기업의 협력, 산업협력이라는 것도 자본참여를 통해서 더욱 더 활발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자본참여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이라는 것은 M&A 시장 활성화에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일 양국 간, 그리고 아시아 각국 간에 기업구조조정, 더 나아가서 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패턴이 바로 이런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협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高杉 暢也 韓國富上ゼロックス(株) 代表理事 會長 : 한국후지세록스의 나카스

기입니다. 오늘 김박사님의 말씀은 아주 시사적인 내용으로 제게도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IMF시기에 한국에 부임하여 한국세록스라는 회사를 한국후지제록스로 재건시킨 경험에 비추어서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그런 뜻에서는 이것은 실물경제와 맞아떨어지는 경험에서 오는 코멘트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은 물론 일본경제가 거품경제 붕괴 후 침체된 탓도 있습니다만, 일본측에서 봤을 때 역시 투자의 매력으로서 한국 이외에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대체되는 입지, 마켓이라든지 생산거점이 선택지로서 있다는 것도 한국측이 꼭 인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한국에 투자하는 매력포인트, 조건으로써 어제 박용성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역시 노동문제,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박사님이 지적하신 앞으로의 한일간의 협력, 특히 금융협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을 초월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보이는 손에 의한 협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협력으로, 비경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그래서 M&A와 같은 것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회사를 예로 들자면 M&A와는 좀 다르지만 역시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재조업으로써 투자한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한일간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도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 마켓으로써 또 생산거점으로써의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한국에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영을 하는 중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M&A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외자를 유치해서 일석오조의 효과를 낳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수용하는 입장, 즉 한국 국내기업들 경영하는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엄격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협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저는 한국이 앞으로 국경이 없어지는 보티레스화 되는 매력적인 환경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민주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기고, 노사문제 등을 해결해 가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간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김박사님께

서 금융협력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만, 한일간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쪼록 이 점을 꼭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가가 자율적인 노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金東煥 韓國金融研究院 研究委員 :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유가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이외에 매력적인 시장도 있고 한국의 노사문제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줄어든 속도가 너무나도 급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7년 이전에도 한국의 노사문제는 오히려 지금 보다 더 치열했고,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97년을 계기로 해서 예컨대 직접투자가 50%에서 4%로 갑자기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이 매력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컨대 제가 자산유동화시장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걸리는 문제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예컨대 담보대출주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담보물건을 유동화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민법상, 상법상의 제약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법률적인 요소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일본에 비하면 사실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적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로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나옴에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자와 지금의 노동자는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언론상이나 신문상에는 잘 들어나지 않지만, 글로벌리즘에 대한 대항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상한 이슈가 한국 노동계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자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국경과 전통과 가족을 무시하는 외자는 반대하지만 일본자본과 같이 우리와 유사한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자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리즘과 노동문제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것은 이제부터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正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간단히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여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
 다만, IMF 이후에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투자는 계속 증가되는데 일본에서의 직접투자가 줄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 다만, 항상 한국의 노사
 문제를 일본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제 기조연설에서도 좋은 예가 발표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노사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 진부가 노사운
 동을 해서 기업운영이 안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은 모두 잘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일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배스컵에 계속 소
 개가 되고 그런 기업들이 없어져야 한국경제가 더욱 안정이 되겠지만, 그런 것
 에 대해서 일본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 나쁜
 면에 두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탁드립니다. 속으로 보
 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다음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金都亨 啓明大學校 教授 : 계명대학교의 김도형입니다. 김동환 박사께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IMF 위기 때 일본의 단기자금이 과도하
 게 유출되었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소위 일본의 책임론이
 그 당시에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일본의 학자그룹의 주장을 보면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번밀히 검토한 결과 단기자금의 유입도 여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
 지 않았지만 동시에 유출된 것도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 하는 데이터를 제시하
 면서 일본의 책임론에 대해서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
 라에서 전혀 반론이 없는 채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책임론을 들먹이기보다는 지금 양국이 경제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
 할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표 1을 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단기자금이 채무로 따진다면 인도네시아 237억이 단기채무인 것 같습니다. 이타
 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은행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자금이 훨씬 많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본다면 일본의 책임론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
 다만, 이 표를 좀더 확대해서 자금의 유출입도 동시에 검토를 하면 체계적인 자
 료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의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숙박업에 대한 비
 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의 대한 투자는 특히 제조
 업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전세계에 대한 투자, 그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

중으로 표준화로 해보면 역시 제조업에 대한 일본의 대한 투자도 평균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니다, 세계평균을 역시 상회해서 일본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이론모델과 구체적인 계산 예를 통해서 제서를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직접 금융시장의 급성장, 또 아시아채권시장의 육성 동등을 통해서 은행의 이탈은 급속도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또 저금리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행으로서는 이 저금리시대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양국이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활용해서 금융의 대개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월런틴정부 이전의 부시정부 말기에 소위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2년간에 걸쳐서 대출금리를 그대로 둔 채로 예금금리를 낮추어 그만큼의 차익을 가지고 은행이 영업이익을 상당기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실채권을 급속히 정리하고 월런틴 경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 이것을 오늘의 우리가 양국이 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부실채권을 제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여기서 산업연관모델에서 예시하고 있는 금융부분, 소위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은행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인하에 따른 분석을 금융과 실물부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측의 우씨다 사무총장께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엔화 약세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엔화 약세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시아 각국의 통화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고 이것이 오늘날 각국으로부터 일본의 투자, 외국의 투자가 이탈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국 상품의 대일본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묵인되고 있는 자체가 아시아경제 발전에 가장 약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엔화 약세를 용인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가령 금년말까지 이러한 상황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시아경제가 다시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게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근에 미역이라든지 몇 가지 농수산물에 대해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발동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농업과 중소기업, 서비스, 유통과 같은 저생산부분을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그 동안 제조업에 관련해서는 굉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역자유화나 금융자유화의 파고를 넘어서 오늘날 거대한 제조업의 대국을 건설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농업과 중소기업, 서비스, 유통과 같은 저생산분부를 온존하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역시 도의시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밸런스를 취하면서 같은 스타트라인에서 산업으로서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안이 되어 있는 FTA 문제만 보더라도 이 저생산분부의 예민한 반응 때문에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때 경제단체 활동도 조금 폭넓게 말하자면 전산업을 끌고루, 그리고 말하자면 제조업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엔화 약세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煥 韓國金融研究院 研究委員 :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책임론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부나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만을 봤을 경우에는 97년 6월말 현재의 대일 채무와 97년 12월말 현재 대일 채무, 이런 식으로 정부의 통계자료를 봤을 때 역시 일본자금의 유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금 유출 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드비헤이비어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에 공여한 자금은 대부분이 은행을 통한 자금이었고 은행간 거래는 그렇게 쉽게 빠고 할 수 있을만한 성질은 아닙니다. 사실 국제금융시장, 자본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고 하는 자금이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일간 자본의 거래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서방계통의 허드비헤이비어가 본질적으로는 더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책임론은 저 자신도 그다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 1은 자금 유출을 동시에 고려한 네트의 개념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단지 그 표는 94년 정도까지밖에 커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더 최신 데이터를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7년 IMF 이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금제공의 형태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은행간의 거래가 중심이었는데 97년 이후에는 제이박자관 등 일본 정부를 통한 자금제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97년 이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금공여 규모는 굉장히 줄긴 하였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자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에 제조업 비중이 낮다, 그러나 세계 평균에 비하면 역시 높은 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확대해서 못한 것에 잘못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봐도 물론 업종별로 97년 이후에는 전자나 IT 관련 투자가 늘긴 했지만, 어떤 다른 나라도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부문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은행의 수익창출모델을 만드는 한 방안으로서 대출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를 낮추어라, 사실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덜 주는 대신에 은행으로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건설해지고 이를 통해서 다시 기업에 대한 새로운 대출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간자산의 60~70%가 예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예금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결국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예금금리를 낮추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금금리 뿐만이 아니고 수수료 등을 통한 수수료 수입 등도 포함해서 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内田 公三 (社)經濟團體連合會 事務總長 : 우선 엔화 약세 문제입니다. 저는 국제통화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일본측 비즈니스맨들이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단련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간단하게 올린다거나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인식에서는 역시 일본의 엔화 강세일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성장률도 높았고 그런 의미에서 엔화 강세가 아시아 전체로 볼 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일본이 최근에 엔화 약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본경제가 대단히 장기불황에 빠져서 저조하다는 것, 또 정부의 긴급경제 대책을 내세웠지만 그 효과도 좋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 정치면에서도 불안정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엔화 약세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본의 입장은 지금까지 아무도 말씀 안하셨는데 장래 일본경제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정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차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의료비문제, 연금제도 등이 파탄하지 않을까 해서 일본국민

사이에서는 대단히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명확한 비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소비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돈은 없지는 않지만 맘대로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악순화에 의해서 최근의 엔화 약세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환율 레이트의 변동이라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두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만, 엔의 국제화라고 할까요 일본의 엔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국제경제 속에서 제 3의 국제통화로서 유통시키고 싶다는 것을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계속 진전이 된다면 이런 각도에서 환율문제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질문으로 아주 정곡을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의 농업문제, 말하자면 하나의 커다란 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자유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경향이 아주 짙고 그렇게 쉽게 이 농산물 자유화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최대의 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정단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종래부터 이 농산물의 자유화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단련이 선두를 달려 왔습니다. 수년 전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 회사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한 적도 있는데 대단히 관련기업들이 폐를 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단련에서는 농산물의 자유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결방법으로서는 역시 식량의 안정보장, 안정공급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러한 일부의 전업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장을 한다든지 그 대신에 무역은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량의 안정보장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쌀 문제인데 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서는 소득보장제도로서 통상정책은 자유롭게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제적인 착수를 해 나가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桜井 健司 三菱商事(株) 取締役副社長 : 미쓰비시에서 온 사쿠라이입니다. 제

가 소속되어 있는 업계는 상사로 유통업입니다.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번의 경제인회의부터 FTA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본측에서는 경단련 검토회라는 회의에 업계에서 나와서 논의를 했고,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에서 최종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지향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틀린 점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융합이라고 했을 경우 서플라이 사이드, 마켓 사이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는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것이 자본시장 등등의 필연적인 융합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때에 경제 합리성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구체적인 요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경제인회의 중에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FTA나 경제융합이라는 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아무쪼록 마켓의 소비자들의 입장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측을 보더라도 또 한국측을 보더라도 일본측에서는 최근에 나온 관민합동, 관 주도형으로 해 왔던 것은 번창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산업측, 서플라이 사이드의 시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마켓 사이드의 시점을 여기에 포함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양측의 산업구조조정 같은 것의 근본은 경제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지원이 없으면 이것은 허황된 탁상공론으로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실제 단계, 실무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론이 다 정리되기까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하나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간의 이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측에서도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 산업계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주식 상호보유가 화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철강업을 들면 일본의 철강업 중에서 그것만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당호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온 농수산업으로 이것은 자유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것만을 성역화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분야, 식유화학, 식유정제, 일본측은 통산성이 주도가 되어서 약간씩 해왔습니다만, 갑자기 한국측의 기대한 장치산업의 집을 다 내놔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합리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금융, 증권 등 기업회계기준을 둘러싼 인프라 정비

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할 때는 내 기업의 기업가치 증대를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에 의해서 제조업의 수평분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일본측의 기업이 한국측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이것은 일방적인 원웨이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측도 일본의 카운트파트에 투자를 해서 쌍방의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결실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대등한 FTA가 결실을 맺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독립국간의 논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프라 준비가 되면 아무래도 정부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의 합리성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엔 이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현장의 경제단체에 있어서의 리코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마 정부간의 개별협상에 들어간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요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측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측에서는 경단련에서 검토회, 각 업종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을 지원하는 행동이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측에서는 업계 대표에 의한 협의체 같은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지금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협의의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측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金都亨 啓明大學校 教授 : 한국측으로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부국이 되고 이제 기초연설을 해 주신 박용성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일단 인선을 끝냈고, 한국측 FTA 비즈니스포럼을 운영해 가기 위한 기초인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대로 다음 번 경제인회의 때는 비즈니스포럼의 논의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지금 일본측에서 질문은 아니고 FTA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국측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日本팀長 :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함께 작년에 한일 FTA의 경제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고 제 자신이 한일 FTA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FTA에 관련해서 어제 기초연설과 오늘 나온 이리 가지 논의를 종합해 봤을 때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일본측과 한국측이 아직까지 솔직히 어느 정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간에 있어서 의견을 상당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많은 일본의 기업에서 우려하고 문제시 삼고 있는 것들이 한국의 노사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한국의 노사관행이 상당히 노사 대립적이고 여러 가지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 한국의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기업들 중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경험했던 경우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대부분의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주로 한국으로의 투자 동기가 한국의 저임금, 물론 지금은 한국이 더 이상 저임금 국가로서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요한 투자요인이 한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던 기업일수록 노사문제가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좋은 판매거점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주변의 아시아국으로의 훌륭한 생산거점으로 생각하고 들어 온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노사문제가 그다지 커다란 현안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한국으로 투자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같이 한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저임금을 활용한 투자가 아니라 보다 장래적이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한국으로의 투자를 생각한다고 할 때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다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노사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나아간 기업의 경우 국가별로 봤을 때 EU나 미국기업 보다는 일본의 기업이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측에서 일본 국내에서의 어떤 노사관행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한국에 와서 노사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강하다 보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그 이상으로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보다 철저히 노사문제라든가 불투명한 경영관행과 같은 불합리한 경영환경을 좀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본측에서도 앞으로 한국을 어떠한 투자국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떠한 업종에서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입장에서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투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길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지금 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임금에 초점을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노사환경을 그대로 끌어 와서 똑같이 한국에 해당시켰기 때문에 그랬다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두 포함해서 일본측으로부터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영을 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杉 暢也 韓國富士ゼロックス(株) 代表理事 會長 : 물론 노사문제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도 생각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기업 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대단히 좋은 모델로서 노동부로부터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임금인상도 교섭 없이 춘투를 마쳤고, 또 저희 회사 노사 한마음대회에서도 노사문제 무분쟁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기업 중에서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개개의 기업들은 수면 하에서는 솔직히 한국의 여러 가지 감시, 규칙 같은 것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제팬클럽 일본인회 대표가 몇 분 여기 오셨는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한국이 변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거점으로서 시장으로서 얼마만큼 한국이 매력적인지 저희들은 일본에 정보를 알신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있었던 롯데호텔의 분쟁이나 대우자동차분쟁, 그리고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정보가 신문과 TV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을 투명화하는 것,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민주주의 경영을 하는 것, 각 경영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는 한 이러한 이미지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노사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아까 분석에서도 어리 가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만이 보도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굳혀 간다는 것,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다 정보로서 나눈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는 여기서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이 정말로 기업 스스로가 민주경영을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즉, 경영 진출을 더욱 더 세교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大慈彌 省：코디네이터：감사합니다. 귀중한 강연 속에서 말씀해 주셨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꼭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일본으로 귀국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측에서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大貫 義昭 三井物産(株) 顧問：미쓰이물산의 오누키입니다.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을 포함해서 코멘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노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년전쯤 한국에 주재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에 비하면 조금 더 고민이 깊었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요즘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문제를 꼭 한일간 기업의 특수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더 개방적인 생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정부 혹은 일본의 상공회반의 접근이 아니라 미국의 미국상공회의소와도 대화를 함께 나누어서 모두 다 개방적으로 한일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으로의 다른 외국기업의 진출문제다,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이셔서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해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상공회의소의 테두리 속에서 범세계적인 생각으로 한국과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한국으로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김선생님께서 파이낸셜 금융문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금적인 지원, 그리고 상임자관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직접투자라는 분야가 들어가는데 김선생님이 말씀하신 부실채권의 유동화라는 문제에서 이것을 본다면 당연히 필요하나, 그것 자체가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개선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시다만, 그것은 처리의 문제이고 그 처리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표로 삼은 그러한 돈이 들어온다는 순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김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TA 문제로 조금 전에 우찌나 사무총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일본의 한일 검토회의 단장을 제가 2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 정도 연구회를 하였는데 현재는 일본의 해당기업의 한국과의 무역실태, 투자실태 등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꼭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의 금융이 일본에 어떻게 진출해 나갈 것인지입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장래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10번 정도, 앞으로 5~6번 정도 더욱 더 연구회를 개최하여 여름까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기에 이르기까지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수산부분은 어떠한 접근을 해 나갈 것인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FTA는 기본적으로는 관세철폐, 관세지하, 그리고 상호의 조건에 어떻게 이것을 인식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증문제, 정부들끼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양국의 산업에서 상당히 힘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찌나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농수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EU같은 경우는 제가 유럽에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쪽에서의 VAT 금액은 평균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5~6% 정도는 약소국에 대한 금융지원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대해서 이러한 곳에 농업지원금이라는 것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EU의 리즈너블한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과 한국이 했을 때 일본의 농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득보장식으로 할 것인지, 하지만 소득보장의 제원도 EU에서는 전체 안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의 VAT의 돈은 누가 내고 어떻게 이것을 할당할 것인지, 자국내의 문제로서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이러한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李地平 LG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노사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노사문제하고 경영문제, 여러 가지 투자문제 등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사문제하고 경영과 소유의 분리문제,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기업들도 현재 회계시스템을 많이 개방화시키고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더 외국인에게 알기 쉬운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사외이사제도를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잘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경우 IMF 위기 이전에 기아 사태가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현실에서 지금 그러한 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경우에도 노사문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찌다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방화와 규제완화, 이것이 일본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험을 미루어 보면 개방화시키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약간 늦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이미 60년대 말에 무역흑자가 축적되어 왔는데, 본격적으로 공업제품의 관세율이 인하된 것이 70년대부터입니다. 100% 출자의 외자가 허용된 것은 76년이었고, 그리고 한국은 올해부터 선진국 수준의 외환자유화를 이루었습니다만, 일본은 98년에야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개방화 수준은 늦춰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일정하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90년대 들어서 개방화가 늦음으로 인해서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위주로 한 개혁이 늦어지면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정단원에서 한일산업협력 검토회를 설치하고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자산업 이외의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부문에서는 어떠한 협력모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윤곽이라도 나와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에 계시는 이지평 박사께서 자기 소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관계와 소유와 경영분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고 우찌다 사무총장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측에 부탁드립니다.

内田 公三 (社)經濟團體連合會 事務總長 : 감사합니다. 무역자본의 자유화는

한국측이 더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인하라든지 관세 자유화 등등을 체크해 가면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본에서는 당시 자유화에 대한 저항이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유화에 의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전체로 봐서는 자유화 방향이 옳다고 해서 당시 경단련이 이른바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하나 하나 체크하다 보면 한국측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된 작업에 관련해서 자동차나 기타 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오누키 좌장님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大貫 義昭 三井物産(株) 顧問 : 지금까지 세 번 업종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기, 철강, 조선, 시멘트, 이러한 큰 업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자동차가 끝나고 아까 말씀이 나왔던 농산물 분야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한 세세한 업종별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寄木 正敏 月島機械(株) 相談役 : 쓰끼시마기계회 요리키라고 합니다. 어제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단만, 오늘 제2분과회를 듣고 약간 각도를 바꾸어서 기술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국 모두다 에너지 자원이 아주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진흥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물경제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생산이나 기술을 보더라도 제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저

도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실물경제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역시 스피드와 이노베이션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스피드에 관해서는 글로벌화의 스피드와 마켓의 니즈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도에 적회 실물경제가 대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개량, 개선, 더 나아가서 개발이 수반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아무래도 정제하고 있는 것은 이 스피드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발, 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바로 경기변동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지면 키질수록 이러한 문제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문제는 마켓 니즈, 스피드와 미스매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의 천지한 비용절감 문제는 당연한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기업이나 열심히 이것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범위를 보면 빅비즈니스의 거대 기업 속에서 기승전걸을 한다든지 또는 하나의 그룹, 예를 들자면 재벌 또는 그룹 계열회사와 같은 문제로 이것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에 있어서는 비용절감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화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의 하나의 거대기업이 대처한다는 것은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FTA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중에 양국 모두 비용절감 문제에 있어서 뒤쳐져서 우리를 놓고 다른 나라들이 앞서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유니크로 선풍이 일고 있습니다. 섬유관련 부분인데 일본의 섬유산업,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코스트가 예상외로 큼니다. 이 비용을 생각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조업, 또는 실물경제에 있어서 비용절감 문제는 폭넓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혹은 전업기업이 기술 생산을 서로 협력해서 결실을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일본 안의 중소기업에 머물러서 되느냐, 한국 내의 중소기업, 또는 전업기업간에만 하던 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폭을 넓혀서 각각의 전업 메이커, 또는 기업을 제편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비용절감, 세계를 상대로 한 비용절감까지는 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물경제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래도 IT와 금융, 유통만으로 돈을 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양국의 생존문제를 봤을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제조 네트, 그룹을 한일간은 물론이거니와 월드 와이드하게 그룹을 탄력적으로 그 때마다 개편을 해서 제조품목,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힘을 쏟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식 생각을 갖고 서는 우리는 우물안에 남겨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한 뒤쳐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출자도 안할 것입니다. 이 투자, 출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전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일지라도 단기자금의 양을 논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착안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사항이 있는데, FTA 양국간의 무역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각각이 업종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서로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 동시에 경쟁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이것을 좀더 폭넓게 생각하고 나서 그에 걸맞는 기술이전을 포함해서 중점분야를 추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李洙喆 三星物産(株) 副社長 : 우선 우찌다 사무총장님이 발표하신 일본의 경제 성장 확대요인이 일본의 개방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좀더 개방적인 기업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말씀하신 FTA 체결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많겠지만 주로 1차 상품을 중심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금융자산의 부실 해결을 위해서 수습조원씩 붓고 있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라도 일부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해서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이미 조직이 구성되어서 오누키 단장께서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그런 FTA라는 큰 과제를 두고서라도 양국간의 우호관계, 특히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무드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식유화학업종 하나만을 대표로 말씀드리고, 특히 오누키 단장께서 화학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글로벌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캐퍼시티로 약 780만톤 정도 되고, 한국이 520만톤, 중국이 410만톤 정도 됩니다. 일본은 지금 30~40년 전에 만든 에틸렌 센타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부두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확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벌써 50만톤 줄었고 일이년 이내에도 약 1~200만톤 가량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과잉 설비투자로 약 절반 정도를 수출해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봤을 때 일본은 어차피 생산시설을 줄여야 하고 한국은 수출을 해야 하는 이런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의 대형 메이커들, 특히 스미토모와 미쓰이가 금번에 합병을 하게 되면서 다시 싱가포르에 대단위 에틸렌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봤을 때 일본에 수입이 역류되는 경과도 나오겠습니나만, 일본의 구조조정이 가까운 한국을 두고 멀리 싱가포르까지 가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놓고 봤을 때 3국간의 무역구조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실현하고 있고 일본은 거꾸로 역조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식유화학의 가까운 판매시장으로는 중국이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중국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일간의 협력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한국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유가 있었건 그런 것은 차지고 FTA나 양국간에 33회에 이르는 이 한일경제인회회의가 좀더 결실있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업종 하나를 선택해서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누키 단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일본측의 답변에 대한 코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답할 시간은 안되는 것 같고, FTA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마다 업종마다 여러 가지 논의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문과위원회가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끝내야 하는 사정상 마지막으로 양측 코디네이터가 간단한 정리를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당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협력 문제라든지 산업구조조정

문제, FTA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안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및 토의를 통해서 한일 금융협력의 현상과 과제와 한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가일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시장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본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화로 한일 경제협력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측 코디네이터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 대단히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꼭 직접적인 투자를 증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본측으로서는 역시 한국에 투자 매력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었던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생생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사회에서 대화해야 할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매력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측과도 문제점을 서로 인식하고, 어제 박희장님께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본측으로서는 대단히 감탄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업을 열어서 허심탄회하게 한국과 일본의 서로의 매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TA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단련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럼이 이미 발족을 했는데 그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높은 것은 지금까지는 추상론이었고 이제는 구체론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金 正 코디네이터 : 그럼 한국측 코디네이터로서 다시 한번 김동환 연구위원님과 우찌다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고, 플로어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2분과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훌륭한 통역을 해 주신 통역 두 분께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박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사무국의 안내가 있겠습니다.

리會 :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분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오지미 쇼조 부사장님, 김정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5. 全體會議 ②

司會【申德鉉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지금부터 전체회의②를 속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합동분과회와 전체회의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 습니다만, 금년부터 전체회의로 통합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체회의는 한국측에서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이신 동양물산기업(주)의 김희 용 회장님과 일본측에서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신 스미토모상사(주)의 秋山 富一 (아끼야마 토미이찌) 상남역님이 공동의장이 되시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희용 의장님, 아끼야마 의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金熙勇 議長: 방금 소개받은 동양물 산기업의 김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 는 秋山 富一(아끼야마 토미이찌) 상남 역님과 이틀째 전체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세 분, 일본측에서 두 분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공동제안 발표,

이어서 오전에 있었던 제 1·2분과회의 양측 코디네이터로부터 회의보고를 들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일 교류분야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상호협력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 면 일본측의 秋山 富一(아끼야마 토미이찌) 의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秋山 富一 議長: 방금 소개받은 아끼 야마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용 회장님 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게 된 것을 지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 양 국관계가 매우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전체회의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한일 양국관계의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희용 의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1) 主題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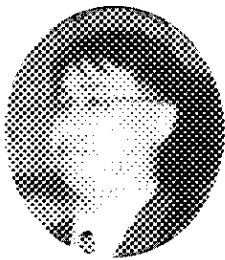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그럼, 주제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발표는 한 분이 15분으로 배정되어 있으므로 진행상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측에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 전략팀의 이지평 연구위원께서 “한일 양국의 부품·소재산업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지평 연구위원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85년 일본 法政(호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1988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하시어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제연구센터 전략팀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일본경제와 아시아경제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이지평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① 韓國側 主題發表

『韓日 兩國의 部品・素材産業 協力』



李 地 平

LG經濟研究院 經濟研究센터 戰略팀 研究委員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일 양국의 부품·소재산업 협력방안에 관해서입니다.

<兩國의 産業 環境과 共同利益>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기에 있는 한일 양국기업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기업은 부품·소재산업분야에 관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90년대 이후 IT혁명, 글로벌화와 같은 흐름에서 미국의 전문 부품기업이라든지 다국적 화학회사, 유럽의 유수의 대형청장산업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일본기업도 새로운 도약을 다시 다져야 하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것

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으로도 작용해 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으로서 이 분야에서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戰略的 提携의 共同利益 擴大>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의 부품·소재산업은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이익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간 협력을 통해 選擇과 集中의 경영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의 부품 및 소재 산업은 수많은 품목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One Set主義가 가진 規模의 非經濟性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한국기업과의 제휴전략을 추진하는 이익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도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나 국산화를 모든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분업을 전제로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원가 절감 이익 확대입니다. 한일 양국간에서 규격이나 사양을 종합하게 되면 서로의 협력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것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제휴전략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본 닛산자동차의 부활과 수익성 향상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 효과입니다. 한일 양국은 이와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부품사양이라든지 규격에 대한 공통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면서 디스플레이션 기조가 강한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가격하락과 압력을 완화시킨다는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事業構造의 再調整 促進입니다. 이미 일본기업간에는 경쟁사와 함께 사업을 서로 통합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한일 기업간에서 확대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섯째, 技術向上 効果입니다. 물론 일본기업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과의 협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전략을 살펴보면 진출한 현지의 기술을 대폭적으로 이전하고 처음 거점의 기술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점의 기술력이 강화되면 그것을 다시 본사로 이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한일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협력의 패턴은 일본기업 입장으로 본다면 協力 可能 상대가 한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등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품분야나 소재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은 아시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아시아와 한국을 비교하게 되면 우선 경제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이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通貨危機 이후 한국은 1999년에 10.7%, 2000년에 8.8%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外換準備高도 1,000억 달러 가까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技術協力 파트너로서의 潛在力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기업 중에서는 기술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통으로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즉 나시 말해 합작선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을 이용하면서 기술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많고 고학력의 인력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는 저임금을 노린 투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더 파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기술력을 가진 지식근로자의 활용거점으로서의 이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부품·소재산업이 IT화하고 글로벌화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의 구조와 다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산시스템을 IT화한다는지 제품자체의 소프트웨어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IT화나 글로벌화가 되어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맨처비즈니스가 이미 반개가 넘고 있는 한국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協力 可能性>

그리하면 이와 같은 협력요건은 성숙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협력해야 하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재님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한일간의 貿易特化指數를 통해 協力 類型을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무역특화지수 상에서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다소 약해지고 한국의 경쟁력이 부상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한일간의 경쟁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일본의 경쟁력이 훨씬 우수한 분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 조달을 하거나 판매제휴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분야의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共同技術開發이라든지 공동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술제휴 등의 방법으로 협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類型의 協力 分野로는 주로 금속소재라든지 석유화학제품으로는 폴리프로필렌 같은 품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일 시장을 그것도 부품·소재산업에서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삼광정밀이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대학에 연구 아웃소싱을 하면서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유수의 일본 가전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는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한일 협력 분야로는 석유화학제품이라든지 금속소재,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 등을 들 수 있고, 이 분야의 경우에는 LG나 삼성전자가 일본기업과의 사업통합형 합작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일본제철과 포항제철과의 협력이라든지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 자동차의 엔진을 비롯한 핵심부품의 협력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주 일본기업으로서는 기술이전을 해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도 나르지만 어느 정도 협력 가능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로열티를 협력상대가 제대로 지불해 줄 것인가 하는 우리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100% 출자의 일본기업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 한국정부나 국민들의 입장도 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克復課題>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라든지 무역상에서 볼 수 있는 협력상태로만 보더라도 협력이 가능하지만 한일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相互信賴와 開放的 비즈니스 風土의 強化입니다. 한국기업의 경우에도 글로벌화하고 일본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들이 원하는 남기라든지 품질과 같은 부분을 잘 맞춰주어야 하고 또 일본기업의 경우에도 좀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조달이나 협력부드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韓國의 品質・技術水準을 提高하는 것입니다. 상호신뢰의 기초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서로 같은 분야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별화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많이 활용하면서 새로운 노하우로 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파쿠와 같은 일본이 자랑하는 부품·소재산업 고장도 좀더 IT화되고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벤처기업 수를 가진 한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이점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韓國 投資環境의 持續的 改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분야에 관해서는 노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본기업들이 과거에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協力對象 企業情報 및 關聯 技術情報의 圓滑한 交流, 韓日 B2B 電子商來의 活性化, 韓日 經濟의 安定成長 및 金融安定 등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으로 하여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의의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 및 소재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이익을 기초로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간다면 IT革命時代에도 製造業 競爭力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議長：李地平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다 공부하시 활동하신 이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일본측의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아끼야마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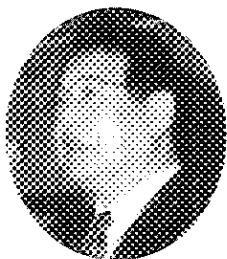
秋山 富一 議長：이어서 일본측으로부터 후쿠오카현의 麻生 渡(아소 와타루) 지사님으로부터 후쿠오카현과 한국의 지역간 교류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소 후쿠오카현 지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3년에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통상산업성(현 산업경제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통상산업성에서는 상무유통심의관, 특허청 장관 등의 요직을 역임하신 후 1995년 4월에 후쿠오카현 지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후쿠오카현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우며 한국과의 깊은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1세기 한일 양국의 지역간교류에 관한 아주 시사적인 말씀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② 日本側 主題發表

「가깝고」 「친한」 關係에서 「화끈한」 關係로」



麻生 渡
福岡県 知事

지금 소개받은 후쿠오카현 지사인 아소입니다. 이와 같이 전통 깊은 중요한 회의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요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우리는 가깝고 친한 관계입니다. 우리 한일간의 관계는 가깝고 친한 관계에서 화끈하고 뜨거운 관계로 많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후쿠오카현과 韓國의 交流 狀況>

그러면 먼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후쿠오카현과 한국의 교류 중에서 인적 왕래를 보시면 후쿠오카현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자수가 167,651명이고 반대로 한국에서 후쿠오카현으로의 출국자수가 139,605명입니다. 5년 전에는 후쿠오카현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자수가 123,000명 정도였습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약 4만명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인적 왕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무역)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계류입니다. 97년의 경우에는 무역량이 조금 떨어졌습시다만, 그 이후부터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국간의 교통의 편리성을 보시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후쿠오카와 인천간의 항공편은 하루에 4편이 운행되고 있고, 부산과 제주도간에서도 자주 있습니다. 항로의 경우에는 후쿠오카와 부산간에는 비틀호라고 하는 고속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척이지만 세 척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비틀호로 가시면 3시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화물, 컨테이너항로를 보시면 博多(하카타)항에서 ~부산항, 北九州(기타큐슈)항에서 부산항 사이에 매우 많은 항로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自治團體 交流>

실제로 교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교류인데 저희들은 현 차원에서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광역단체에서 지방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간의 해협 도지사 서밋이라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2년 이후 10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참여를 하시고 일본측은 후쿠오카현, 佐賀(사가)현, 長崎(나가사키)현, 山口(야마구치)현의 각 지사가 매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제 실무부대를 만들어서 9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 교류입니다. 매년 고교생들 50명 정도를 상호방문해서 홈스테이, 교류회, 현지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는 인터넷 사매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희망하는 고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술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연구직원의 교류와 함께 1995년 1월부터 양국이 산성비 등에 대한 공동조사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육수(호소나 하천 등) 및 集水域의 질소 유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관련도 매우 활발한 교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실 광대한 해협이고 많은 어획을 하다 보니까 수산자원도 떨어지고 남획도 이루어지고 해서 이대로 이것을 방치하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원관리형 어업을 하루빨리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동인식 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업자간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1995년부터 참돔 등의 치어에 관한 공동방류사업과 어업 종사자들의 친목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원을 우리 손으로 보호하고 키워나가자고 하는 인식 하에서 수산관련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교류의 경우에는 주로 조사단이라든지 미션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관광관련 부문은 한국측과 후쿠오카 내지는 큐슈 전체의 공통의 관광루트를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아에 세계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광루트가 개발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계몽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친선 이벤트사업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호국, 현이나 시에

서 중요한 이벤트나 축제가 있을 경우에 서로를 초대합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제전에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러한 것에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벤트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현, 도, 나라를 대표한다는 어떤 긍지를 가지고 양측 주민들이 상대방의 제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양국의 해협연안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협의회를 구축하여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양국에 있어서 점차 여성 파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간의 교류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일여성포럼」을 양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여성지위 향상문제, 남녀 공동참여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회들의 해협 서미트는 의례적인 교류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로 전환하자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중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개입은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교류주체는 민간부분이 맡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民間交流>

최근 민간교류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중소기업교류입니다. 최근 새로운 동향을 보면 이업종교류단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교류를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현의 이업종교류회와 한국측의 경기도 이업종교류회가 서로 협정을 맺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회들은 이러한 이업종교류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동업종교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같은 시대가 되면 동업종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업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이업종간의 새로운 사고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을 창설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업종교류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측에서도 많은 인식이 되면서 이업종교류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거래 상담회·국제 건본시에 양국 기업이 상호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중국의 기업(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과 일본기업과의 제품·기술의 건본시 상담회인 「환황해 산업기술페어」(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매년

개최)에 한국으로부터 매년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상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일본의 기술 및 특히 상담회인 「한일테크노마트」(서울, 부산에서 개최), 국제기계박람회(경남 창원시에서 개최)에 후쿠오카현을 비롯한 큐슈기업들이 참여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아주 중요한 IT(정보기술)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T를 활용한 협력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 중에 IT관련 분과회에서도 몇 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후쿠오카와 부산간에 새로운 광섬유가 부설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큐슈·야마구치(山口)경제연합회와 한국의 전전련이 동의를 해서 일본측은 큐슈전력이나 KDD, 기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에 착공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시기에 맞춰 운용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쿠오카 기가비트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4기가바트의 고속·대용량 광섬유를 이용한 정보 간선을 후쿠오카현내에 정비하여 금년 가을에 운용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경-후쿠오카 간은 고속 전용선으로 직결, 간선이용은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IT 특히 인터넷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이유가 백본 정비가 일본측은 지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어떤 기간적인 대용량의 파이버 위에 몇 개의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Multimedia Alliance Fukuoka(MAF)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멀티미디어 얼라이언스 후쿠오카」의 내용을 보시면 후쿠오카에는 예술공학대학, 정보계통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30개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통해 정보계통의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될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 중에서 주로 영상을 만드는 산업을 후쿠오카에서 한번 구축해 보자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e-아시아 플랜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e-아시아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로 아시아무역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시 벨트 후쿠오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큐슈는 실리콘 아일랜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반도체가 매우 발달된 집적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 LSI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많은 산학관 공동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벤처육성, 지적소유권의 교

환시장 같은 것들을 만들자는 컨셉 하에서 이러한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 밸트라고 하는 것은 후쿠오카, 한국, 상하이,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가 일체가 된 상호 보완관계의 시스템 LSI의 설계 거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후쿠오카 벤처 마켓(FVM)입니다. 베월 20개사의 벤처기업을 불러서 일본 전국의 투자가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프레젠테이션하도록 해서 자금을 원하는지 인재를 원하는지 마켓을 원하는지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국기업이 이미 7개사가 참여했고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참여하고 일본 전국에서도 이 후쿠오카 벤처 마켓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아시아의 공동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두텁고 뜨거운 관계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한일 양국의 관계는 정말로 변화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서로 친숙해지는 관계, 문화정책으로 인해서 양국의 젊은이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편안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교류도 실적이 동반된 교류를 추진해 나가자, 중소기업 교류를 특별히 중시하자, 젊은이들의 교류를 중시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걸린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호 친선을 통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秋山 富一 議長 : 아소 지사님, 감사합니다. 광범위하게 현재, 장래를 내다 본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참고가 되었고 흥미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희용 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형태 부연구위원께서 “환황해권 지역간 국제물류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형태 부연구위원은 1980년에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1992년에 일본 靑山(아오야마)학원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경상대, 단국대를 거쳐 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게시며,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해운학회 회원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 주최 「전국 청년·학생 국제문제 논문콩쿨대회」에서 외부대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③ 韓國側 主題發表

「環黃海圈 地域間 國際港灣物流의 協力方案」



金 亨 泰

韓國海洋水產開發院 副研究委員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형태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 한국, 중국을 둘러싼 환황해권의 물류환경 변화가 격심합니다. 이미 지난 세기의 20여년 전부터 세계적인 물류환경이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서양 연안을 통과한 화물량 보다도 태평양 연안을 횡단한 화물량이 더욱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양시대가 그 이후부터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태평양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도 특히 환황해권을 둘러싸고 있는 3개국가간의 물류교역패턴이 어떤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교류패턴에 비해서 다이내믹하게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황해권 지역에 있어서의 3개국간은 세계경제의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로 크나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지 10년, 20년 후에는 미국 다음의 경제축을 형성하기 않겠는가 하는 중국 내부의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본도 여전히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도 지난 10여년 이상 성장세가 급격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황해권을 둘러싸고 있는 3개국가의 경우에는 국제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종래의 국제물류교역정책 자체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저는 환황해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물류환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이 지역이 상호국제교역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환황해권 지역의 항만물류환경>

먼저 환황해권 지역의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물류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수출입 항만물동량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위 개방화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이후 수출입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해 왔고 그에 따라서 항만에 있어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박스를 1개의 TEU라고 표현합니다. 1980년대에는 8만 TEU에 불과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거의 2,050만TEU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0여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왔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증가세를 보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국의 항만을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上海(상하이)港의 경우에는 561만TEU를 처리해서 1998년도에 세계 제 10위의 항만권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에는 세계 제 7위로, 작년도에는 제 6위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향후 2005년에는 4,000만TEU, 2010년에는 6,000만TEU를 초과할 것으로 자국 또는 세계 연구기관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은 단일국가로서는 전세계에서 최대의 물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항만 물동량도 중국 못지 않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항의 물동량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트랜짓 컨테이너 화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트랜짓 컨테이너 화물량의 증가속도는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대지진 이후 일본 서안(일본 동해권지역과 큐슈 및 시코쿠지역)의 물량이 종래는 고베항을 많이 경유했습니다만, 부산항을 경유하는 경향이 이제 정착화되었고, 또한 북중국지역의 항만은 수심이 얕고 항만시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중국지역의 컨테이너 화물량도 한국의 부산을 경유해서 북미지역이나 유럽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산항이 환황해권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교역 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항만의 상대적인 정체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의 고베항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심항만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일본경제의 공동화현상과 더불어 항만의 경쟁력이 다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일본의 전체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 중국, 일본간의 상호 교역 물동량이 엄청난 스피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중항로의 경우에 물량이 연간 약 140만 TEU 정도로 3국간의 교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나옴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항로의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간의 물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중계물량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중항로의 경우에는 트랜짓 비율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약 40% 이상이 한국을 경유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항로의 경우에도 2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서안 지역의 화물이 상당수가 한국의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3국간의 교역패턴이 더욱 밀접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중·일간에는 대량의 인적·물적 교류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카페리항로도 취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물류인프라 및 제도정비>

이와 같은 국제물류의 변화에 대응해서 각국의 경우에는 시설, 인프라의 정비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정비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스피드로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항만시설을 대형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푸둥(浦東)공항 및 상해항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이론적인 체제 하에서는 항만의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항만개발 관리운영 체제의 지방화, 즉 분권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분권화정책에 힘입어서 상호간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국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여러 가지 물류 인프라의 정비가 세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시설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의 Hutchison Whampoa 그룹, 호주의 P&O Ports사, 싱가포르의 PSA Corp.사 등의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운영업체들이 중국 항만에 진출해서 지금 중국 컨테이너 항만의 약 65%는 이러한 선진 외국기업에

의해서 건설 운영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국제간의 교역확대를 위한 국제물류기지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2년도에 소위 「수입·대내투자법」을 제정하여 수입촉진지역(FAZ : Foreign Access Zone)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공항 및 항만 배후에 종합보세구역 설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수입촉진지역은 전국의 22개소에 40여개의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간접자본이 엄청나게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중요 인프라를 건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민간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이라는 것도 도입하고 부산항, 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책사업으로 건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도에는 소위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도입을 해서 현재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4개 지역에 대규모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도 199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는 보세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무역지대」를 도입해서 현재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98년말 현재 49개국의 3,580개 외국기업이 입주해 있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3개국 모두 현재 두드러지고 발달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해서 무역, 수출입 및 항만입출항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전자문서로서 정보를 교환하는 EDI 시스템이 3국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경우가 조금 빨랐습니다. 1996년도에는 항만입출항 절차가 EDI화되고, 1997년에 수출입 절차가 EDI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별항만별로 정보시스템은 한국보다 빨리 구축되었으나 전국적인 차원의 EDI화는 다소 늦어져 1999년에 비로소 구축·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항만운영업체들이 개별항만에 진출해서 EDI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의 제약요인>

문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급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국제규격이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한황해권 국가의 수출입 및 항만입출항 절차가 표준화,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절차가 도입되어서 간소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각국의 수출입 절차, 항만입출항 절차가 제도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기술을 활용한 입출항절차의 표준화, 통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것이 구축이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국제물류의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둘째, 환황해권 지역 물류기업의 인접국가에 대한 진출이 비약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물류기업의 진출이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FAZ 지역이라든지 한국의 관세자유지역에는 아직 외국물류기업의 진출이 거의 비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류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부족, 각국의 개방화 정책 미진 및 항만물류시장의 폐쇄성 등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각국 모두 국제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및 공항 주위에 대규모 물류거점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수입축진지역은 현재 일본 전역의 2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황해권에 접해 있는 큐슈지역의 경우 北九州(키타큐슈)港, 長崎(나가사키)空港, 熊本(구마모투)港, 大分(오이따)港의 4개 지역에 수입축진지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환황해권 국가의 기업 및 일본 국내 물류기업의 입주가 예상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에도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내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협력방안>

이와 같이 환경변화는 급격한데 반해서 제도적으로는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e-비즈니스의 확산, 국제간에 있어서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합리화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황해권 국가간의 국제물류 합리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협력방안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출항 및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내지는 통일화를 도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IT기술을 활용한 정보 송수신체제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술을 공동적으로 통일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연합 차원에서 세계무역의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중·일 3국이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시도해서 세계경제를 선도한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각국의 물류업체가 상대방 국가의 공항 혹은 항만 배후부지에 자유롭게

진출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 모두 외국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용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FAZ지역이 설치가 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는 대대적으로 시설이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의 기업이나 중국의 기업이 일본의 FAZ지역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JETRO를 통해서 FAZ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국이나 중국의 물류업체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정보교환체제의 구축도 필요하고 홍보활동의 강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시장에 있어서의 개방화 및 국제물류 표준규범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물류시장은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개방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로테르담, 안트워프, 함부르크는 모두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쟁을 통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한 협력, 공생관계를 앞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熙勇 議長 : 김형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본측의 두 번째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아끼야마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秋山 富一 議長 : 그러면 이어서 일본측으로부터 노부라중권의 스즈키 마사시 상임고문님으로부터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테마는 「일본의 자본시장 현황과 전망」입니다.

스즈키 상임고문님의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8년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신 이후에 노부라중권에 입사하셨습니다. 노부라중권의 대표이사 사장, 회장을 역임하신 후에 1998년부터 상임고문으로 계십니다. 2000년부터는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도 역임하시면서 한일간의 경제관계 강화에 크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금융·증권분야의 전문가로서 많은 경험에 입각한 매우 유의한 강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즈키 고문님, 잘 부탁드립니다.

④ 日本側 主題發表

『日本の 資本市場 現況과 展望』



鈴木 政志

野村證券(株) 常任顧問

방금 소개받은 스즈키라고 합니다. 오늘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자본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mpetitive(경쟁적인), Customer oriented(고객 지향적인), Credible(신용할 수 있는)」의 「3C」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시작된 한국의 금융빅뱅에 앞서 일본에서도 1996년부터 「Free, Fare, Global」을 이념으로 한 일본판 빅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판 빅뱅은 증권시장뿐 아니라 은행업, 보험업 관련 금융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2001년 3월말에 일단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2002년 4월부터 도입되는 은행예금 pay off 해금 등의 제도개혁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일본판 빅뱅은 기존의 은행예금과 대부(貸付)를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주도형 금융시스템」에서 증권시장을 활용한 「시장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지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금융시스템 전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금융구조가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변화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시장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이행은 아직 중간정도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은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판매채널 확대, 금융상품 다양화로 인한 편의성 향상, 거래소간 경쟁의 본격화, 금융중개기관 재편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판매채널 확대와 금융상품 다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매매위탁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자유화되고 1999년 10월에는 완전자유화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 설립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는 온라인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새로운 증권회사가

있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증권회사도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말 시점에서 20개사의 전업 온라인 증권회사를 포함한 65개사 증권회사가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말 시점, 온라인 증권 계좌 수는 180만 계좌를 넘었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주가가 연달아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 주식매매대금은 감소세에 있으며 수지면에서 보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벌써부터 생존을 건고 온라인 증권회사 간 합병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들이 증권회사 지점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온라인 거래 보급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긴 것은 증권시장 활성화에 있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의한 투자신탁 창구판매도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MMF 등, 안전성이 높은 투자신탁 판매에 중점을 두었던 은행도 최근에는 주식투자신탁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통해 판매한 투자신탁 잔고는 2001년 2월말 시점에서 거의 8조엔이었습니다. 은행의 투자신탁 판매로 인해 지금까지 은행 예금 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증권투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면 역시 시장전체 활성화로 이어지리라 기대됩니다.

금융상품 時價會計 도입을 억제하고 기존에 행해져 왔던 기업 간 주식보합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의 증권시장 참여가 중요해 집니다. 일본의 주식분포 상황조사를 보면 既 발행주의 30.9%를 금융기관이, 23.7%를 사업법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하주세에 있던 가계 보유비율은 더 이상 떨어지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상승으로 전환될 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우체국에서 10년 전에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정액지급 상품 약 100조엔이 만기를 맞이하여 이 개인자금이 어느 금융상품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존 결과를 보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만기자금의 약 70%가 우체국 저금에 머물러, 안전지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부터 증권투자에 무관심한 층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법 제정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설명을 적절하게 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증권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채널 확대 면에서는 인터넷 은행도 점차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에 더하여 최근 신규참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apan net Bank'에 이어, 곧 일본최대 슈퍼마켓 체인 '이토 요오카도'의 'IY Bank'가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토 요오카도'는 일본 최대의 점포망을 구축한 편의점 '세븐 일레븐'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점포망에 설치한 ATM을

이용하여 결제 서비스 중심의 업무전개를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또 SONY, TOYOTA와 같은 대규모 우량기업이 잇따라 본업과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면서 금융서비스업으로 신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증권회사나 은행이 중심이었던 시장에 신규참여가 발생한 결과,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라는 점에서는, 예를 들어 투자신탁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동산 투자신탁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하면 ‘분에 넘치는 그림의 떡’이라 여겨왔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회사형 투자신탁의 형태를 취해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시가총액 5조엔 규모의 대형상품이 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부동산 투자신탁부를 신설하여 부동산 투자신탁의 상장지도,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소간 경쟁의 본격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까지 8개의 증권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거래 점유율을 보면 도쿄 증권거래소가 거의 90%,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 증권거래소에서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지방기업은 먼저 그 지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기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규칙으로 인해 지방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드디어 작년 니이가타(新潟) 증권거래소와 히로시마(廣島) 증권거래소가 도쿄 증권거래소에 흡수되고 교토(京都) 증권거래소는 오사카 증권거래소에 흡수되었습니다.

2위인 오사카 증권거래소도 도쿄 증권거래소에 대항하여 독자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닛케이(日經) 225 주가지수 선물을 비롯한 금융파생상품(derivative) 거래 진흥에 주력함과 동시에 새로운 거래시스템 도입과 미국 나스닥과의 제휴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대상 증권거래소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비디스’,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나스닥과 제휴 설립한 ‘나스닥 제팬’, 그리고 지금까지 젊은 기업의 공개 장소로 여겨져 온 店頭市場 간에서 삼각구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년 간, 이 세 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 수는 174개사에 달합니다. 나고야(名古屋) 증권거래소나 삿포로(札幌) 증권거래소의 벤처시장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起業이 적고 활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받는 일본 상황을 전환시킬 중요한 변화로 여겨집니다.

거래소의 株式會社化는 세계적 추세이며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3월, 접두시장 운영주체가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며 그 뿐 아니라 도쿄, 오사카 증권거래소도 가까운 시일에 주식회사로 전환할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시스템 개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적 자금운영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해외 증권거래소와의 제휴도 시야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 빅뱅 진전에 따른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밖에도 상법 등 기본적 법률의 제검토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해금, 기업 조직재편성을 용이케 하는 기업분할법 제도 정비, 기업제건을 위한 도산수속 신속처리를 위한 민사재생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 사업회사의 경영을 둘러싼 법 제도는 과거에 비해 유연성이 훨씬 높아 졌습니다. 또한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기존의 부과방식을 중심으로 한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아서 미국의 401K제도를 본 받아, '확정각출형 연금' 도입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토록 일본경제 구조개혁이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할 수 없다는 이유와 나스닥시장 주가 대폭하락 등의 이유로 올해 들어 닷케이 평균으로 본 주가는 거품경제 붕괴이후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러한 주가하락으로 정부는 긴급시장 활성화 방안을 책정하였으며 일본은행은 실질적인 Zero금리정책을 부득이하게 부활시켰습니다. 긴급시장활성화방안은 배당 2중 과세 시정, 자본수익(capital gain)과세 세율인하, 소액 자본수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과 같은 세제조치, 상장투자신탁 인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주가하락에 대한 비관적 견해도 강합니다만, 사실 기업측 개선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은 빅뱅 등의 제도개혁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익수준이 과거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도 많아, 저희 예상으로는 주요기업 400개사 기준으로 이익이 과거 최고였던 1989년도 수준을 100으로 치면 2002년도에는 147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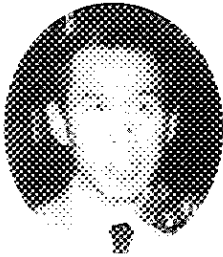
해외에서는 주가하락에 따라 신규공개 속도가 대폭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에 의한 주식 신규공개가 올해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가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습니다만, 향후 전망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秋山 富一 議長 : 감사합니다. 아주 변화가 극심한 자본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측의 세 번째 주제발표로써 광주광역시의 정광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광주의 투자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광훈 국장님은 1992년 광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1997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91년에 광주직할시 내무국 지원2담당관을 시작으로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기획관리실 기획관을 거쳐 현재 경제통상국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광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⑤ 韓國側 主題發表

「光州의 投資 環境」



鄭 鵬 薰
光州廣域市 經濟通商局長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시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 투자환경을 화면의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인구는 137만명이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고, 첨단과학산업을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1980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의향이고,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예술의 예향이며, 음식맛이 뛰어난 미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샌다이시와 우호축전 협정을 맺었고, 미애현과는 1993년부터 노동단체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도쿄와 오사카에서 김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도시로 선정돼 내년에는 월드컵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는 환황해경제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략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광주는 한반도 서남부의 경제 행정의 중심도시입니다.

다음은 광주권의 산업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증대로 서해안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광주와 연계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남고속도로와 함께 신규로 인천-군산-목포를 잇는 서남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광주-목포를 잇는 호남선 복선화 공사가 2002년까지 완공되고 호남선의 고속전철화 공사도 2001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양국제컨테이너항은 올해 자유무역항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 물류기지가 될 것이며, 2011년까지는 목포 신외항도 완성될 것입니다. 기존의 광주공항에다 2003년까지 부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광주는 국제무대를 향해 더욱 활발하게 이륙할 것입니다.

이제 광주의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비롯,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 7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m²당 월 4엔씩 저렴한 임대료에다, 최장 10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좋아 최근 완전 분양됐고, 지금은 제 2차 단지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한국기업에 10%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하이테크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액이 1백만달러 이상이면 임대료를 완전 면제하고, 법인세는 10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해 주고 있어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해도 매우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첨단과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연구, 교육, 주거, 문화, 산업 등 복합기능이 완비되어 있고 단지 내에는 과학기술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광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중입니다.

광주지역은 전통적으로 가전산업과 반도체,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공작기계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18개 나라에서 49개 외국기업이 투자하여 활발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투자액 규모를 보면 일본은 11개사로 총 투자액 규모에서 0.1%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3개사가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업으로는 일본의 일프스, 미국의 캐리어, 그리고 최근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한 미국의 압코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21세기에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인 광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우리시 첨단 산업단지에도 광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포토닉스 2010 프로젝트입니다. 이 같은 포토닉스 2010 프로젝트가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광관련 시설을 갖추고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산업 육성계획의 바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로 2003년까지 국내 광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해 광산업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2단계로 세계 유수의 광관련 기업들과 국제적인 분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3단계인 2010년 이후에는 세계 5위권 광부품 생산기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집중 육성하는 분야는 4개 분야로 첫째, 광검출 및 신호처리 소자 WDM 등 광통신부품 분야, 둘째, 레이저가공, 광센서, 초정밀 가공기 등 레이저응용 분야, 셋째, 정보기기용광원, 반도체레이저, LED 등 광원 분야, 마지막으로 광세라믹, 광축매, 광 플라스틱 등 소재 분야입니다.

광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광산업집적화단지 조성, 한국광기술원과 광기술연구소 설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광통신관련 분원 광주설치, 광통신시험망 구축 등을 비롯 상품화지원, 창업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본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포토닉스 2010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주체들이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합작투자,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일본의 고도기술이 결합되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광주에서 성공한 일본기업으로는 한국알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알프스전기가 100%투자한 기업으로 동사 사장 히다까씨는 전세계 10개의 알프스전기 계열사 가운데 광주공장은 고급기술자의 이직율이 가장 낮아 매우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성공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양질의 노동력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의 매력 있는 투자여건으로는 노사분규가 거의 없으며, 노동자의 이직율이 매우 낮고, 양질의 노동인력이 풍부하여 생산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각종 문화, 여가, 의료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가 여러분이 광주에 오신다면 광주시가 지원해 드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를 15년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좋은 조건의 조세우대 조치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광주와 일본의 주요도시를 잇는 직항로 개선을 추진하고, 셋째, 일본기업 전담 노사협력관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근로자의 일본어교육을 위한 소정의 보조금 지급, 광주공항의 일본인 전용탑승구 설치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광주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광주시 통상협력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의 광주 방문을 거듭 환영하면서 이번 기회에 광주를 두루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곳에 투자하는 문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입니다.

金熙勇 議長 : 정광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국의 주제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제발표에 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 共同提案

金熙勇 議長 :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양측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안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일경제협회의 신영민 이사로부터 한일 공동제안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申 榮 敏
(社)韓日經濟協會 理事

한일경제협회 **申榮敏**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한일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세 가지 안전에 대해 제안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派遣>

먼저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한국으로부터의 파견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파견은 '89년 제1회 미션을 파견한 이래, 한국측에서 7회, 일본측에서 4회 상호 파견하였으며, 최근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도래에 걸맞게 보다 더 충실한 정보교환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양국 경제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차세대를 젊어질 젊은 경영인간의 교류강화라는 의미에서, 또한 한일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본 중견경제인교류 사업은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일관계를 더욱 돈독한 관계로 이어 줄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측에서 일본 동경으로 파견을 예정하고 있으며, 산업무역회의 개최시기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약간 앞당겨 9월말경에 파견코자 하오니 일본측에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일산업무역회의와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두 사업은 개최시기도 근접해 있음은 물론 장소도 같은 해 같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행사에 모두 참가하는 기업인도 다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으로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일 양경제협회 정례업무협약에서, 금년도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고, 제33회 경제인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2002년부터 두 행사의 개최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실시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에는 한일산업무역회의는 한국에서,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은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靑少年交流 韓日大學生 相互訪問>

다음으로 청소년교류 한일대학생 상호방문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교류사업은 한일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1985년에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한국에서 모두 16회에 걸쳐서 689명, 일본에서는 1988년 이후 모두 13회에 걸쳐서 367명, 양국을 합쳐 1,056명의 대학생이 상호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미래를 젊어질 대학생들에게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간수성이 풍부한 젊은 시절에 서로의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얻은 경험이 향후 양국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매년 참가한 양국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의 제출을 받고 있는 바, 이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신선한 체험을 하면서 이웃나라에 대한 고

정적인 이미지가 우호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파트너십」 행동계획에도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이 거론되고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으며, 양국 정부도 학생교류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귀중한 연수여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내용 또한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금년에도 양국 경제계 및 양국 회원사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청소년교류 한일대학생 상호방문사업을 여류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韓國訪日輸出促進團・産業技術交流促進미션 派遣>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인 무역・산업기술협력에 관한 한국방일수출촉진단・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은 당협회와 일본무역진흥회가 상호 협력하는 사업으로 '85년부터 지금까지 중견중소기업 총 2,363개사 3,333명을 파견하였으며, 그 결과 총 26,885건의 수출상담 및 일본 현지상공인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수출확대는 물론 상호협력관계를 가일층 심화시켜 왔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바, 1차 촉진단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오사카(大阪)와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양국 중소기업간의 교류촉진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협력사업의 일환인 「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사업은 '93년부터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수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99년부터는 양국재단의 공동사업이 되어 내용이 더욱 확대,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 파견할 예정으로, 1차 미션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關東地域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진 두 미션이 올해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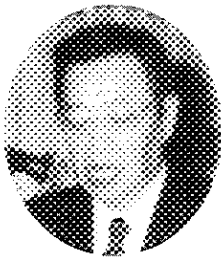
이상 세 건을 한일 공동제안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본 공동제안은 양측에서 사전에 합의한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3) 分科會 코디네이터 報告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오전에 있었던 제 1·2분과회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1분과회로써 한국측 코디네이터를 맡으셨던 대한제당(주)의 설원봉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① 第 1 分科會 報告



薛 元 鳳

韓國側 코디네이터

방금 소개받은 제 1분과회 코디네이터 대한제당(주)의 설원봉입니다.

제1분과회에서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IT활용과 협력방안」이라는 테마로 한국측에서는 삼성전자(주)의 이강석 상부가 일본측으로 부터는 미쓰비시전기(주)의 北岡 隆(기타오카 다카시) 상임상담역으로부터 각각 백그라운드 패이퍼발표가 있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양측에서 많은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양국 기업들로부터 자사의 IT의 도입 및 활용현황에 대한 여러 건의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참석한 양측 기업 경영자들에게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의 경우 일본의 대기업과 각각 비즈니스차원에서 이미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IT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본측의 사례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의 제 3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도 IT혁명에 대한 대응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양국 경제인들이 논의한 바 있으며, 그밖에도 몇몇 전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순수 IT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의 여지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IT문제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논의단계를 지나서 양국의 경제협회가 중점되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며, 공동구매시스템의 구축, 양국의 표준화 추진, 인재육성, 인프라의 확충 등에 있어서 하나들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IT의 실제적인 사용현황에 대한 조

사분식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조사추진을 위해 이번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결과를 정리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측 대표단의 적극적인 토론참가, 그 중에서도 포항제철의 유상부 회장의 적극적이고 경륜 높은 코멘트는 많은 회원들에게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주인의식을 가져야함은 물론 종업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유상부회장의 코멘트는 양국 기업인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분과회의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본측 코디네이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끼야마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秋山 富一 議長 : 그럼 제1분과회에서 일본측 코디네이터를 맡으신 아소시멘트의 아소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일본측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소시멘트의 아소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강석 상무이사님과 미쓰비시전기의 키타오카 상남역께서 IT Industry, e-Economy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차원에서 백그라운드 페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두 분이 인터넷 성장이 지금까지의 전기·전자부품 성장속도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라든지 또는 IT의 활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막대한 가능성, 그 속도에 대해서 서로 재확인을 하며, 그 위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격차의 발생입니다.

플로어에서도 자사에서 활용상황이라든지 성공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플로어에서 지금까지 굴뚝산업으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방대한 정보량을 가공하고 또 표준화함으로써 해서 뉴이코노미의 노히우적인 무기로서 새로운 전개, 새로운 비즈니스찬스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라는 구체적인 사례발표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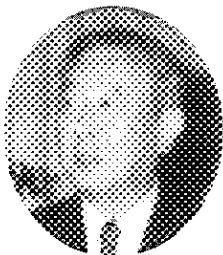
e-Business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계열화는 앞으로 해소될 것이다, 물류 등도 지금까지의 규칙과는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현실이라든지, 또는 종신고용이라든지 등등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인터넷 i모드 등 정보량은 쉽게 방대한 양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대한 양 중에서 양질의 것을 선택하고 가공하고 상품화하는 열쇠는 역시 인적 사원의 인재양성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고 많은 분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시스템과 정보사용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리더십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일 경제계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좀처럼 구체화하기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회의에서는 토의, 정보교환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을 취할 단계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정하고 실행에 옮길만한 테마는 없느냐 하는 제안도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秋山 富一 議長 : 아소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분과회로써 한국측 코디네이터를 맡으셨던 (주)한화유동의 김정 대표이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② 第 2 分科會 報告



金 正
韓國側 코디네이터

제2분과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분과회 테마는 구조조정 속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이었습니다. 백그라운드 페이퍼로는 한국측의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한일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内田 公三(우찌다 고조) 경단련 사무총장님이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계의 대응」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두 주제 모두 근래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양국의 관심사항인 FTA에 대해서도 플로어로부터 많은 토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국측 김동환 연구위원님은 IMF 전후 한일 금융거래의 특징 파악을 통한 현황 이해 및 양국간 금융산업과 타산업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자본의 논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금융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일반적 특징과는 다소 다르게 양국의 금융산업은 높은 전후방면관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양국의 금융과 산업관계를 정량적으로 보여준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측 우찌다 코조 경단편 사무총장님은 일본의 산업정책사 변화를 통해 현재 세계경제 흐름과 비교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공조방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예를 들어 실질적 협력관계 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금융 및 산업부문의 전반적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시장의 흐름에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유동시장의 법적제도 등 인프라 구축, 과다한 달러위주의 거래환경 시스템 개선, 최근의 미국경제 연착륙 등의 과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 모두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 위기로, 실물경제 위기는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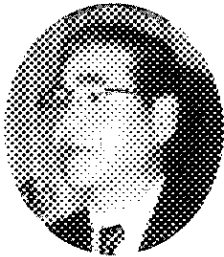
결국 세계화의 추세는 한일 양국 어느 국가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금융부문의 자유화는 이미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자금들은 이미 국가간, 대륙간을 넘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금융 인프라 부재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향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엔 등락이 심하여 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직접투자 및 M&A에 대해서 일본측은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한국측에서 최근에 노사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시장경제, 경제적 보완성을 갖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화로 한일경제협력의 지름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플로어로부터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지만, 알아본 결과 한국측 사무국은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팀이며 1차 합동회의는 금년 9월말 전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議長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본측 코디네이터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끼야마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秋山 富一 議長 : 일본측 코디네이터이신 오지미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이시가와지마하리마중공업의 오지미입니다. 제2분과회 일본측 코디네이터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미 한국측의 김정 사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 한일 금융협력이 이점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직접투자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본측이 봤을 경우에 한국에 대한 투자 노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좀더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협력 메리트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측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제로 경영을 하고 계시는 후지제록스의 회장님의 발언이 있었는데, 한국의 노사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서울제펜클럽에서도 일본에서 생각한 것 보다 훨씬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작년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던 롯데라든지 대우자동차라든지 의사의 파업 등에 대한 노사분쟁의 내용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좀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일본측이 인정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측으로부터는 이른바 자유경쟁이야말로 경쟁의 활력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정부의 간섭이 있었습디나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잉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만,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는 한국측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도 아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론은 찬성이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어떠한가, 상호 공동이익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나, 이러한 업종별 논의를 해서 조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구해야 한다, 총론보다도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 이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서로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작금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앞으로는 역시 바켓을 중시해야 한다, 스피드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본측, 한국측 모두 다 아주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했으며, 앞으로의 한일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유의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秋山 富一 議長：오자비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金熙勇 議長：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체회의의 모든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본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각종 사업들은 한일교류증진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활발화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인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특히 오늘 일본측 공동의장으로 회의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아끼야마 토미이찌 의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아끼야마 의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秋山 富一 議長：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협조 감사합니다. 어제 부터 오늘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여러분들께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정말 과거 예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이 마음에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망일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좋은 우호 분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을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회에서도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분야를 커버하시면서 그 토론을 통해서 지금의 한일 양국의 관계가 매우 강화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논의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어

면 힌트, 시사점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개막이 되는 시점에서 매우 훌륭한 회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측의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리드해주신 김희용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熙勇 議長 : 이상으로써 이틀째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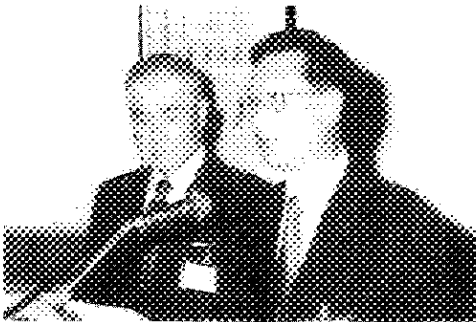
司會 : 김희용 의장님, 아끼야마 의장님 감사합니다. 1분도 안틀리고 16:10에 정확히 전체회의를 마쳐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분간 공동성명 매부를 위해서 잠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은 후, 이어서 16:30부터 폐회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 10 ~ 16 : 30 커피 브레이크>

6. 閉 會 式

(1) 共同聲明 採擇

金相廈 議長 :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국 단장단 및 전문위원장에 의해 공동성명(안)이 검토·심의되었기에 사무국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申 德 鉉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공동성명은 한국측 문안만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측은 니시무라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가 옆에 서 계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성명(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성명(안)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는..... (이하 생략)」

(『공동성명』 본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金相廈 議長 : 감사합니다. 공동성명(안)은 이상과 같습니다만, 이에 대한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후지무라 의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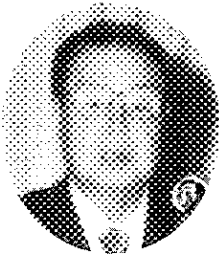
藤村 正哉 副議長 : 찬성입니다.

金相廈 議長 : 그럼,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그럼, 이후의 진행은 사무국에 부탁드립니다.

(2) 團長人事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양국 단장님의 폐회 인사가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김상하 한국측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金 相 廈
韓國側 代表團 團長

尊敬하는 藤村 正哉(후지무라 마사야)團長님과 顧問, 相談役을 비롯한 日本 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韓國側 代表團 여러분!

어제 午後부터 이틀간에 걸쳐 開催된 第33回 韓日經濟人會議를 閉會함에 있어 간단히 人事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會議에서는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서 始終一貫 眞摯하고도 活潑한 協議와 討論에 임해주심으로써, 조금 전 報告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어느 會議보다도 더 알찬 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親愛하는 兩國 代表團 여러분!

세상 만سم드릴 나위도 없이 우리 두 나라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不可分の 關係에 있습니다. 그것은 過去에도 그러했고, 現在도 그리하며 또 未來에도 永遠히 변치 않는 哲理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分明합니다. 여러분께 특히 當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會議에서 얻은 結論을 積極的이고도 持續的인 實踐을 통해 반드시 實現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會議가 이곳에서 成功的으로 開催될 수 있도록 積極的으로 協助해주신 光州廣域市 高在維 市長님을 비롯한 官民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謝意를 표하며, 특히 日本側 代表團께서는 移動의 不便에도 不拘하시고 이처럼 멀리 와주신 誠意에 다시 한번 깊은 感謝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兩國 代表團 여러분의 加一層의 發展과 健勝을 祈願드리며, 來年 4월에 日本에서 다시 만나 볼 것을 期約드리면서 저의 閉會人事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측의 후지부라 마사야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藤村 正哉
日本側 代表團 團長

존경하는 김상하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한국측 단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현지 광주광역시의 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도 매우 유익하고 많은 내용을 담은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양호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오늘 분과회 보고에서도 느낄 수 있었듯이 이제 인사는 필요가 없다, 그러한 형식보다는 깊은 본론에 들어가자,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양쪽 분과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전에 공동성명(안)에도 있었듯이 일본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오찬시 단장단이 모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간 교류 활발화라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많은 후보지가 있었습디만, 히로시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도시이고 평화도시이고 공업과 관광도 매우 발달해 있으며 먹거리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광주시에는 미처 따라가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많은 분들께서 히로시마 회의에도 참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히로시마시, 히로시마현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히로시마현의 지사님과 히로시마 시장님께서 대거 저희를 방문하셔서 꼭 한일경제인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를 대표해서 수임역의 이토 선생님, 그리고 경제계를 대표해서 상공회의소 부회장이신 시라이 선생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을 앞에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白井 隆康 広島商工會議所 副會頭
伊藤 利彦 広島市 収入役

상공회의소 부회두인 시라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토 선생님이십니다. 후지무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들! 2002

년 제3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지로 히로시마시를 결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표자로서 뜨거운 감사말씀 드립니다. 히로시마현민, 그리고 히로시마시민들이, 그리고 히로시마 경제계는 여러분들을 온 정성을 다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평화문화도시의 히로시마는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세토나이해의 아름다운 경치와 세계유산인 원폭돔, 그리고 이즈크시마 신사를 비롯한 역사 문화적인 유산이 여러분들께 깊은 감명을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히로시마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는 큰 기대를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잔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단장인사 계속)

그러면 내년 4월 11일, 12일로 현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히로시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뵐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상하 회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第33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01年 6月 7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申 德 鉉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729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9-1

(韓國貿易會館 1504號)

TEL : 02-551-1531, 1541 FAX : 02-551-1530, 1540